

홀리타임즈

질병을 **치유** 하는
선포문

데이빗리 목사

목차 CONTENTS

- | | |
|-----------------------|----------------------|
| 1. 창 20:17 _ 7 | 22. 잠 14:30 _ 150 |
| 2. 출 15:26 _ 15 | 23. 잠 25:28 _ 158 |
| 3. 출 23:24-26 _ 22 | 24. 사 30:26 _ 167 |
| 4. 신 7:15 _ 30 | 25. 사 38:16-17 _ 176 |
| 5. 신 30:19-20 _ 35 | 26. 사 43:25 _ 183 |
| 6. 왕하 20:5 _ 42 | 27. 사 53:5 _ 190 |
| 7. 대하 30:18-20 _ 48 | 28. 사 57:17-19 _ 197 |
| 8. 욥 5:17-18 _ 55 | 29. 사 58:6-8 _ 204 |
| 9. 시 6:1-2 _ 61 | 30. 사 58:9-11 _ 213 |
| 10. 시 30:2 _ 68 | 31. 사 61:1 _ 222 |
| 11. 시 35:11-12 _ 74 | 32. 렘 17:14 _ 231 |
| 12. 시 41:1-3 _ 81 | 33. 렘 30:17 _ 239 |
| 13. 시 41:4 _ 88 | 34. 렘 33:6 _ 247 |
| 14. 시 91:2-3 _ 95 | 35. 겔 34:15-16 _ 256 |
| 15. 시 91:14-16 _ 101 | 36. 말 4:2 _ 265 |
| 16. 시 103:2-5 _ 107 | 37. 마 4:24 _ 274 |
| 17. 시 118:15-17 _ 119 | 38. 마 8:2-3 _ 281 |
| 18. 시 147:2-3 _ 125 | 39. 마 8:16-17 _ 287 |
| 19. 잠 3:7-8 _ 131 | 40. 마 9:20-22 _ 293 |
| 20. 잠 4:20-22 _ 137 | 41. 마 9:35 _ 299 |
| 21. 잠 4:23 _ 143 | |

- | | |
|----------------------|----------------------|
| 42. 마 10:1 _ 305 | 68. 눅 13:11-13 _ 490 |
| 43. 마 10:8 _ 311 | 69. 눅 17:12-19 _ 498 |
| 44. 마 12:11-13 _ 319 | 70. 요 5:5-9 _ 505 |
| 45. 마 12:15 _ 327 | 71. 요 9:1-6 _ 513 |
| 46. 마 14:35-36 _ 335 | 72. 요 9:31 _ 521 |
| 47. 마 17:17-18 _ 342 | 73. 요 10:10 _ 528 |
| 48. 마 18:18 _ 350 | 74. 행 3:3-9 _ 535 |
| 49. 마 18:19 _ 357 | 75. 행 5:14-16 _ 542 |
| 50. 마 19:2 _ 364 | 76. 행 9:32-35 _ 549 |
| 51. 마 2:3-12 _ 370 | 77. 행 10:38 _ 557 |
| 52. 막 1:30-31 _ 378 | 78. 행 14:8-10 _ 565 |
| 53. 막 1:34 _ 385 | 79. 행 28:8-9 _ 572 |
| 54. 막 1:40-42 _ 392 | 80. 행 8:11 _ 579 |
| 55. 막 3:-5 _ 400 | 81. 고전 12:9 _ 586 |
| 56. 막 5:27-29 _ 406 | 82. 고전 12:28 _ 593 |
| 57. 막 5:34 _ 412 | 83. 갈 3:13 _ 600 |
| 58. 막 6:12-13 _ 418 | 84. 약 5:14 _ 607 |
| 59. 막 7:32-35 _ 424 | 85. 약 5:15 _ 613 |
| 60. 막 8:23-26 _ 430 | 86. 약 5:16 _ 619 |
| 61. 막 10:46-50 _ 438 | 87. 벰전 2:24 _ 626 |
| 62. 막 11:23 _ 445 | 88. 요일 5:14-15 _ 632 |
| 63. 막 11:24 _ 452 | 89. 요삼 1:2 _ 639 |
| 64. 막 16:17-18 _ 459 | 90. 계 22:1 _ 644 |
| 65. 눅 6:18-19 _ 467 | |
| 66. 눅 7:12-15 _ 475 | |
| 67. 눅 7:21 _ 483 | |

들어가는 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질병이 없는 건강한 육신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병을 꾸짖어야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2천년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질병은 치유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질병은 불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질병을 꾸짖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다 나았음을 선포할 때 질병은 치유될 것입니다.

질병 치유를 위해 믿음으로 이 기도문을 읽으십시오.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계속해

서 영상을 틀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질병 세포가 파쇄될 것입니다. 질병을 가져다 주는 모든 악한세력이 파쇄될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연기처럼 없어질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읽고 듣고 선포할 때에 어느 순간 질병체가 빠져나올 것입니다. 기침으로 빠져 나오며 가래와 하품으로 빠져 나올 것입니다. 또한 소변과 대변으로 빠져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질병이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다 나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 나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치유의 구절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에 약속된 치유의 말씀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나는 다 나았습니다”

“나는 다 치유되었습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나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치유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유를 약속해 주신 성경구절을 읽을 것입니다. 당신도 따라서 읽으십시오. 저와 함께 설명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데이빗리목사



1

나의 기도를 들으사 치료하시는 하나님



“[창 20:17] 아브라함이 하나님
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
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어느 날, 암 판정을 받은 한 권사님이 있었
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고, 항암 치료는 매일을 견디기 힘들 만
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
고,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러나 그녀는 매일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십니
다.” 사람들은 병원 치료에만 의지하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그녀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녀가 날마다 붙잡았던 말씀은 다음과 같
았습니다.

“[창 20:1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
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놀라운 것은, 병든 자가 기도한 것이 아니
라 아브라함이 대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
다. 그는 자신의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자
신의 가족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 간구했습
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
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안에 닫혀 있던 생명
의 문을 다시 여시고, 그들의 몸과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집안의 여인들을 치료하셨고
(히브리어 <라파>), 생명의 흐름이 다시 시
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지 한 사람의 사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과 연결된 중보의 기도(히브리어 <팔랄>)

였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한 시대의 사건이나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듯, 지금도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귀를 막지 않으시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통이 삶을 짓누르고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끌어오는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기도'입니다.

그 권사님은 병원 치료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지으셨사오니, 주께서 고치소서.”

사람이 포기해도, 의사의 말이 절망적이어도, 그녀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몸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셨고, 실제로 기도를 들으셨으며, 친히 그녀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치리라.”

그분은 치료자(히브리어 <여호와 라파>)이시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만지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황보다 말씀을 붙들고, 감정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기도는 곧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불임의 여인들을 치료하시고 생산케 하신
그날처럼,
오늘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의 몸에 있는 이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세포의 변화도, 유전적
한계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무력할 뿐임을 고백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

습니다.

의학도 중요하지만, 제 믿음은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기적이 일어
납니다.

이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은 하나님의 손에 있노라.

나는 치유받았노라.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만지셨노라.

암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평안으로 바뀔지어다.

우울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할지
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에 감

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듯, 저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
하게 하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질병의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으리라



“[출 15:26]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질병조차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이지은 집사님은 수년 전

원인 모를 피부질환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알레르기, 면역 이상, 스트레스 등 여러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정확한 진단은 나오지 않았고, 피부는 갈라지고 진물이 나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지은 집사님은 어느 날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읽다가 눈물을 쏟으며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사람에게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불순종들이 쌓여 있었음을 깨달은 그녀는 하나하나 회개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자 결단했습니다. 놀랍게도 40일이 지나고 그녀의 피부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3개월 뒤에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

습니다.

그녀는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치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켜지고 회복됩니다. 질병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과 삶 전체의 순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청종하라. 내 보기에 의를 행하라. 내 계명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로서 너를 치유하리라.”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아설 때, 치료는 시작됩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회개합니다.
숨겨진 죄, 습관적인 죄, 무지로 지은 죄까지
모두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질병은 저의 몸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없

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은
나를 넘어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
니다.
당신의 언약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여호와를 섬기면 질병이 치료되리라



“[출 23:24]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며 그것들을 다 훼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출 23:25]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출 23:26]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진호 장로님은 오랜 세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으며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해 오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약을 복용해도 증상은 완전히 사

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묵상하던 중, 진호 장로님은 한 가지 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깊은 부분에 우상이 있구나.”

그는 곧바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늘 돈에 대한 염려를 쌓아두고 있었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보다 학원과 스펙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교회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정작 마음 중심에는 ‘성공’과 ‘인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깊이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루하루의 시간표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새벽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우선순위로 세우며, 가정 안에 숨어있던 점, 사주, 미신과 관련된 물건들을 전부 정리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몸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으며, 혈압도 약을 줄여가며 정상 범위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는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신 뒤에야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육체보다 먼저, 마음과 삶의 중심을 고치시더군요.”

이 말씀이 전하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병을 제하시며, 생명의 날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병만을 고쳐달라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의 주인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십니다.

다.

이제 우리도 결단합니다.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들을
파쇄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
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마음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
니다.

그동안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
했음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우상들-사람의 인정, 돈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집착, 세상적인 성
공을 향한 욕망-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
습니다.

나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미신적 요소,
하나님보다 앞세운 가치들을 지금 이 순간
파쇄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주인으로 삼지 않
겠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하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 가정의 병을 제하시고,

잉태하지 못하던 자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날 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우상은 예수의 이름으
로 무너졌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치유하셨고,

나의 필요를 채우셨으며,

우리 가정에 복을 부어주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나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의 몸과 가정을 회복시키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모든 질병은 내게서 멀어질지어다



“[신 7:15]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네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
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
이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신
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의 성품에서 나오는 진리이며, 그분의 백
성에게 주어진 보호의 선언입니다.

부산의 김예선 자매는 몇 년 전,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고통받
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검사 결
과는 정상. 하지만 증상은 반복되었고, 마

음까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명기 7장 15절의 말씀을 읽다가 그녀는 깊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 말씀을 믿고 싶는데 현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나에게서 멀리하신대! 나는 그 어떠한 질병도 내게 근접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변화는 없었지만, 그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어느 날부터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몸에서 병보다 먼저 두려움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병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전쟁을 대신 싸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병원 기록에 남지 않아도, 혈액검사 수치에 안 잡혀도, 우리의 몸 안팎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은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질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질병은 믿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질병을 ‘멀리하신다’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치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질병이 머물 자리가 아닙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 임했던 악질들이 결코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떠도는 질병 세균들,
공기를 타고 다니는 바이러스,
몸 속에 숨어 있는 이상세포들까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력하게 하소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혈액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세포와 신경과 장기를 만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갈지어다!
나를 해하려는 질병은 나를 넘어서 지나갈
지어다!
애굽의 그 악질이 나에게서 임하지 아니할
지어다!
나는 질병과 아무런 상관이 없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지켜주시며,
나의 삶에 복을 부어주시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시는 줄 믿고 감사
를 드립니다.



5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신 30:19]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
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 30:20]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
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중요한
선택 앞에 이르도록 이끄십니다. 바로 “생
명과 사망”, “복과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단순한 윤리적 선택이 아닌, 삶과

질병, 가정과 자손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택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박은희 권사님은 오랫동안 만성 신장 질환으로 투병하셨습니다. 병세가 깊어질수록 생명에 대한 소망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말씀 묵상 중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더군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마음은 이미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날부터 “나는 생명을 택합니다”라는 선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눈을 뜨면 “나는 살 것입니다”라고 외쳤고, 약을 먹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녀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신장

수치는 점점 정상 범위로 회복되어갔습니다.

그녀는 간증합니다.

“말씀 앞에 섰고, 생명을 선택하며 살기 시작하자 내 몸도 그 말씀을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그냥 흘러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할 때 그 생명은 내 삶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부종하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꼭 붙들라, 밀착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밀착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보다 우선이 되고, 기도가 내 숨이 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나의 본능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제 나와 내 집은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 우리 몸의 질병, 마음의 상처, 가정의 문제에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이 순간 생명을 선택합니다.
사망이 내게 속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복을 선택합니다.
저주는 나와 내 집과 무관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들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하신 생명이시며

내 장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 삶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생명을 선택했노라!

나는 복을 선택했노라!

나와 내 가정은 생명의 강에 뿌리를 내릴 지어다!

사망의 그늘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유전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이 흘러들어올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을 선택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내 자손이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

간절한 기도로 생명을 얻으라



“[왕하 20:5]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삼 일만에 여호와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 왕은 침상에 얼굴을 돌려 벽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함과 충성됨을 토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절절한 기도 한 줄기에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김연화 권사님은 몇 해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실려 갔습니다. 가족들은 의사의 차가운 말 앞에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화 권사님의 딸 민지 자매는 병원 복도에서 성경을 펴 들고, 히스기야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합니다. 엄마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제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밤낮으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의사도 예상하지 못한 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후에는 눈을 떴고, 두 달 뒤에는 회복하여 성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연화 권사님은 이후 간증 집회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눈을 다시 뜨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음성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기록하시며,
그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기도는 단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
는 생명과 사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은 우리 몸의 질병을 만지시고, 죽어가는
세포에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이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분은 들으시고, 보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눈물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저의 아픔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의 눈물을 기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었던 차가운 마음은
부서질지어다!
기도하지 못하게 붙들고 있던 묶임은 끊어
질지어다!
나의 마음은 부드러워질지어다!
상한 심령으로,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
에 나아갈지어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부르짖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질병을 치료하시며,

저를 다시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

정결하고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대하 30:18]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잇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케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대하 30:19]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대하 30:20]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 오랜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 채 유월절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규례를 어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상태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고,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백성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규례대로 다 갖추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고 고쳐주십니다.

대전에서 사역 중인 박성자 권사님은 몇

년 전,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원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항암 전이라 면역력이 약해 예배 출석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몸도 마음도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정결하게 성찬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말씀도 제대로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제 중심을 보아 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마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늘에 닿았습니다. 예배 후 병원으로 돌아간 그녀는 재검을 받게 되었고, 놀랍게도 위암 수치가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도, 가족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게는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자격보다 마음을 보시더군요. 하나님은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또 박 권사님처럼 하나님께 정결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심, 그분을 붙들겠다는 의지만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십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죄와 더러움으로 얼룩졌던 제 영혼을 씻어주시고,

이제는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불순물들-교만, 미움, 불신, 정욕,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소서.

제 안에 정결한 심령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정결한 제물로 변화되었노라.

나는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께 드려졌노라.

세상의 죄는 내게서 물러갔고,

질병은 더 이상 내게 머무를 자리가 없노라.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질병을 고치셨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 속에서도 중심을 보아주신 하

나님,
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저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욥 5:17] 불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 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 여기지 말지니라
[욥 5:18]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기도 하시며, 상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 손으로 싸매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경남 김해에 사는 이성민 집사님은 심한 공황장애와 불면증으로 오랜 세월 고통받았습니다. 낮에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두려웠고, 밤이면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닐까요?”라고 물었습니다. 모든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새벽, 성민 집사님은 욥기 5장 말씀을 읽으며 마음이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기 위해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저를 싸매어 주십시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안정제를 끊을 수 있었고, 깊은 밤 잠드는 시간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때려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만지기 위해서 흔드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사랑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 머물도록 내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상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직접 싸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아프게 하시되,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손으로 싸매십니다. 그 손으로 고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질병과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믿고, 그분의 치유하심을 기다립시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겪는 이 징계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님을 이제는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
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저를 다루
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조차 하기 힘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깨닫습니다.
당신은 징계 가운데서도 싸매시는 하나님
이심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나는 다 나았노라!
나는 치유되었노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고 계심을 믿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징계 속에서도 나를 사랑으로 다루어 주심
을 감사합니다.
나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나의 상한 육체를 고쳐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

하나님은 내게 질병을 주지 않으신다



“[시 6:1]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
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시 6:2]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
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
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
치소서”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누구보다 깊
이 인식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
노하신다면 자신은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
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
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
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는 죄책감으로 인해 수척해졌고, 뼈마저 떨릴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치실 분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때로 징계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긍휼과 자비로 치료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한유진 자매는 20대 후반, 이유 없는 편두통과 호흡곤란,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수차례 찾았습니다. 그러나 진단은 늘 “스트레스성”이었고, 어느 날은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책과 불안이 몸을 아프게 합니다. 본인을 좀 용서하세요.”

사실 그녀는 청소년기에 방황했던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었고, 그 죄의 그림자가 지금 자신의 질병을 불러온 것 같다는 생각에 매일 하나님 앞에서 위축된 마음으로만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편 6편 말씀을 묵상하던 날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질병은 그분이 주신 형벌이 아니라, 내 안에 품고 있던 거짓된 두려움 때문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놀랍게도 몇 달이 지나자 증상은 사라졌고, 그녀는 지금 상담치유 사역자로 섬기며 동일한 고통 속에 있는 청년들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로 오해했던 시간조차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아픈 몸을 만지시고, 상한 마음을 품에 안으십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기 위한 분이 아니시며,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죄책감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질병이 징계가 아님을 선포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질병으로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며, 싸매시는 분이시
라!

내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친히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
이다!

모든 거짓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죄의식과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나는 용서받았노라!

나는 치유되었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징계로 오해했던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신 주님의 사
랑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
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



10

부르짖을 때 치유를 받는다



“[시 30:2] 여호와 내 하나님이어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
셨나이다”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속
으로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
리어로 ‘부르짖다’는 <샤와>는 ‘절규하다,’
‘외치다,’ ‘간절히 부르다’는 의미입니다. 이
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과 감정과 목
소리를 다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몸의 고통, 영혼의 짓눌림, 인생
의 문제까지 다 내려놓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하늘 자매는 4년 전,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로 왼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겼으며, 평생 보청기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망과 절망 속에서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눈물을 흘리며 성전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다윗을 고치셨듯이 저를 고쳐주세요.”

그녀는 누가 들을까 부끄러움도 잊고, 깊은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났을 때, 왼쪽 귀에 다시 미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6개월 뒤 병원에서는 청력이 80%까

지 회복되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늘 자매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 목소리를 들으셨고, 제 심장을 만지셨고, 제 귀를 여셨습니다. 기적은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늘을 여시고, 치료의 손을 내미십니다.

부르짖음은 우리의 마지막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하늘 자매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눈물로, 절규로, 소망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 놓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 그를 고치신 것처럼,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짖습니다.
저의 마음을 아시고, 저의 눈물을 기억하
시며,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지치고 아픕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삶의 무게도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오늘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고치소서!”
간절한 음성으로, 모든 감정을 담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치유되었노라!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치셨노라!
나의 상처는 아물었노라!
나의 삶은 회복되었노라!
나의 영혼은 새롭게 되었노라!

모든 고통과 질병과 억눌림은 예수의 이름
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료의 기름이 내 육신과 마음과
인생 위에 흘러넘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
립니다.
저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 손을 찬양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

악인을 축복해야 내가 축복을 받는다



“[시 35:11]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시 35:12]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나 [시 35:13] 나는 저희가 병 들었을 때에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선하게 행했으나, 사람들이 그의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그를 무고했고, 다윗은 외로움 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그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고, 붉은 베옷을 입고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 말은,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결국 그 복이 나에게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축복했고, 그 축복이 자신에게 치유와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정미경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 한 성도에게 이유 없이 모함을 당했습니다. 미경 집사님의 말과 행동이 왜곡되어 소문이 퍼졌고, 그녀는 어느 날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곧 마음의 병이 되었고, 심한 두통과 가슴 답답함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 35편 말씀을 읽던 중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축복하라. 너는 다윗처럼 기도하라.”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매일 그 성도를 위
해 축복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그 분을 축복해주세요. 그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분의 질병을 고쳐주
세요.”

그리고 한 달 뒤, 본인의 두통이 사라졌고,
몸의 통증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오해
했던 그 성도가 찾아와 미안하다고 고백했
습니다.

정미경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저는 용서하지 못해 병이 들었고, 축복하
며 살기 시작하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치유는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미움은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축복은 우
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의 기도

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우리 품으로 되돌려 보내십니다.
치유도, 회복도, 기쁨도 그렇게 우리 삶에
다시 돌아옵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힘들게 하고,
거짓으로 상처 주며,
저의 선을 악으로 갇았던 이들을
이 시간 용서합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겠습니다.

그들이 병들었다면 낫게 하소서.
그들의 가정에 화평을 주소서.
그들의 삶에 회복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에서 쓴 뿌리를 제거해 주소서.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을 걷어내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용서하노라.
나는 축복하노라.
나는 치유되었노라.
내 기도는 내 품으로 돌아왔노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셨노라.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치셨노라.

모든 고통과 상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을 축복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제 품으로 복으로 돌려주신 하
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제 영혼을 치유하시고, 제 몸을 고
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

나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라



“[시 41:1]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시 41:2]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
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
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시 41:3]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
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픔에만 갇힌 자보다, 타
인의 고통을 품고 중보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향해 손을 내미는 사
람에게 그 병상에서 일으키시는 은혜를 부
어주십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최성욱 형제는 폐질환으로 몇 년간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며 지냈습니다. 본인의 호흡조차 버거운 날들이 많았고, 그는 입술로는 감사하지만 속으로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계속되는가?”라는 탄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심하게 기침하며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본인의 산소 튜브를 잠시 뽑고 노인에게 다가갔고,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실 겁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밤, 성욱 형제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뜨겁게 중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고, 폐기능 수치가 놀라

울 만큼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나보다 더 아픈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제 병도 만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 연약할 때, 마음도 움츠러
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나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 병상에서 붙들어 일으키리
라.”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는 하나님의 손길로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기도할 누군가를 떠올리십시
오.

지금 당신보다 더 힘든 누군가가 있습니
다.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도 닦아주실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동안 저의 고통에만 집중하며 살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저보다 더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
다는 것ですよ.

하나님,
제가 이제 그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소
서.
눈을 들어 연약한 자를 보게 하소서.
손을 내밀어 그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나보다 더 고통 속에 있는 누구누구(이름
을 구체적으로 불러보세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병상 위에 주의 손이 머물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 위로가 흐르게 하소서.
그의 영혼에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이기심을 끊고 중보하는 자로 설지어
다!
나는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자로 변할지어
다!
하나님께서 내 병중 그 자리를 고쳐 펴시
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재앙의 날에 건지시리
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이의 고통을 기억할 수 있는 마

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고통을 어루만지심을 느낍니다.

이제는 저도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가라



“[시 41:4]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의인이 아닌, 진실한 죄인을 찾으십니다.

의로워 보이는 모습으로 겉을 단장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보다, 찢어진 심령으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오는 자를 더 기뻐하십니다.

시편 41편에서 다윗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질병으로 눕게 되었으며, 마음조차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

하며, 영혼의 고침을 구합니다.

대전 둔산동에 사는 장진수 집사님은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고 사형선고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는 수십 년 간 교회를 다녔지만, 자신의 삶이 늘 “나는 괜찮다, 나는 신실하다”는 자기의로 가득 찼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침상 위에서 시편 41편을 읽던 중 그 말씀에 가슴이 멎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의로운 자처럼 봐주십시오. 가아닙니다. 저를 죄인으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병보다 깊은 곳에서 시작되

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회복 속도에 놀라며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는 말합니다.

“진짜 회개가 시작되자, 제 몸도 마음도 함께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오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감추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포장하지 말고 무릎 꿇으십시오.

주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고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의인이 아니라,
진실한 죄인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
다.

저의 마음 깊은 곳,
숨기고 덮어둔 죄악까지
이제는 모두 드러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태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상처 주었고,
저 스스로 의롭다 여겼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노
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노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고치셨노라!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깨끗이 치유하셨노
라!

내 몸속에 있던 모든 더러움은 사라졌노
라!
모든 병균은 떠나갔노라!
모든 감염은 정결케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과 몸과 영혼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
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베푸시는 치유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



“[시 91:2]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
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이라 하리니 [시 91:3]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
한 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이는 약을, 어떤 이는 병원을, 또 어떤
이는 사람의 말이나 돈을 의지합니다. 그
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분의 손
안에서 참된 피난처와 안전을 경험하게 됩
니다.

시편 91편은 고통받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즉 보이지 않는 위협과 함정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극심한 전염병과 질병에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이정훈 장로님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숨 막히는 밤, 그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살아가며, 평생 쌓아온 신앙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나를 여기까지 몰아가시는가...”

그때 한 간호사가 그에게 작은 성경책을 펼쳐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페이지는 시편 91편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조용히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사람이나 세상을 의

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말씀을 붙들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염병에서 건지소서.”

그 기도를 시작으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장로님은 2주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1달 뒤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예배 때마다 시편 91편을 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질병도, 위협도, 인생의 불확실함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질병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
다.
약도, 병원도, 사람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합
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냥꾼 같은 음모와 공격에서
저를 건지소서.
보이지 않는 질병, 숨겨진 고통,
몸 속 깊이 자리 잡은 문제에서
저를 자유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노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노래!

나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되었노라!
나는 극한 염병에서 건짐을 받았노라!
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었노라!
나는 자유하노라!
나는 회복되었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숨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몸을 만지시고,
나의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질병의 시간을 지나면서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
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시 91:14]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시 91:15]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
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
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
롭게 하리라 [시 91:16] 내가 장
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기억하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건지시는 데서 끝나지 않
고, 그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시며, 장수와

구원의 복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이영자 권사님은 몇 해 전,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삶의 벼랑 끝에 섰습니다. 치료를 받기에는 연세가 많고, 수술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을 정리하시라”는 말을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병상에서 말씀을 펴고 매일 선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소서.”

가족들과 지인들도 그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시편 91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암세포가 활동을 멈추었고, 수술 없이도 전이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예배 때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건지셨고, 지금도 함께 하

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름을 높이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환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환난 날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고,
삶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십
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제 마음을 엽니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저를 기억해 주소서.
저의 고통을 지나치지 마시고,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저를 건지소서.
저를 높이소서.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대!
지금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대!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암세포, 염증, 통증, 세균은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덮고 계시며,
그 손에서 나의 치유가 시작되었노래!

나는 회복되었노래!
나는 강건하노래!
나는 장수함으로 만족하노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환난 날에 건지시고,
병상에서 함께하시며,
저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시 103:2] 내 영혼아 여호와
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
지 말지어다 [시103:3]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 103:4] 네 생
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
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시
103:5]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
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
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치유자이시
며,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육체와 삶 전체에 새로운 힘을 부어주십니
다.

시편 103편은 단지 감사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절망 속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의 외침입니다.

죄책감으로 눌렸던 영혼, 질병으로 쇠약했던 몸, 무너진 삶과 꿈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셨을 때 터져 나오는
진정한 찬양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박지은 자매는 루푸스(자가면역질환) 판정을 받고 오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체력은 빠르게 소진되었고, 일상생활조차 어려웠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점점 무기력해졌고, 어느 날 그녀는 기도조차 중단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겐 아무 변화도 없는 건가요?”

그날 밤, 누군가 보내준 시편 103편 말씀을 붙잡고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녀는 자신에게 명령하듯 다시 외쳤습니다.

“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때부터 기적처럼 매일 조금씩 체력이 회복되었고, 3개월 뒤에는 혼자 마트에 장도 볼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찬양사역자로 교회를 섬기며 다른 병든 이들을 위한 기도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다시 날게 하셨습니다. 독수리처럼요. 이전의 나보다 더 강한 나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구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청춘처럼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하늘

로 날게 하십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의 은택을 송축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소서.
저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저에게 관을 씌워주소서.

하나님,
저의 지친 삶을 새롭게 하소서.
저의 연약한 육신에 새 힘을 부어주소서.
저의 마음에 새날을 허락하소서.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노래!

나는 병고침을 받았노래!

나는 생명을 얻었노래!

나는 파멸에서 벗어났노래!

나는 독수리 날개치며 새 힘을 얻었노래!

나는 다시 달릴 수 있고,

다시 찬양할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죄에서 건지시고,

병상에서 일으키시며,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
합니다.

오늘도 독수리처럼 날게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



“[시 107:19]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시 107:20]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죽음의 문턱, 그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며 끝처럼 느껴지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끝에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위경”-즉, 죽음과 파멸, 끝을 선언받은 자리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경기 평택에 사는 김미라 집사님은 몇 년 전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조차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사는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정리하십시오”라는 말을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병실에 혼자 남아 시편 107편을 펼쳐 읽으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지라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시어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재검을 받았을 때, 암세포의 활동이 멈췄고, 두 달 후에는 간호사가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 안에서 놀라운 자연치유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녀는 고백합니다.

“말씀은 살아 있었고, 하나님은 정말 저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부를 때

그분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죽음의 그늘에서 생명의 광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근심 중에 있사오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고통 중에 있사오나,
주님께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눈물을 기억하소서.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소서.
저를 파멸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제게 보내주소
서.
그 말씀이 저를 고치게 하소서.
제 뱃속 깊은 곳까지 회복되게 하소서.
제 심령의 깊은 절망까지 소생되게 하소
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위경에서 건짐을 받았노래!
나는 죽음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노
래!
나의 고통은 끝났노래!
나의 근심은 사라졌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치유되었노래!

나는 살아났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저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멸의 자리에서 저를 회복의 자리로 옮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저를 고쳐주시고,
당신의 긍휼로 저를 살리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리라



“[시 118:15] 의인의 장막에 기
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와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
시며 [시 118:16] 여호와와 오른
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와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시
118:17]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하나님의 백성, 의인의 장막에는 구원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곳에는 눈물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소리가 울려 퍼
집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선언이 이어집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것은 단지 병상에서 일어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죽음과 절망을 이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정훈 집사님은 2023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10분만 늦었으면 끝이었습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정훈 집사님은 주먹을 꼭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겠습니다.”

그의 회복은 빠르고 놀라웠습니다. 그 이후 그는 매주 복지관을 찾아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살아났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습니다.
그 손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권능을 베푸
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기의 순간을 넘기게 하시
는 분이 아닙니다.
죽을 자를 살리시는 분이며, 병든 자를 일
으키시는 분이며, 살아난 자를 통해 자신
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분이
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병상에 누워 있든, 어떤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 오늘 이 말
씀은 당신을 위한 선언입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리라!”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향해 오른손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손에는 권능이 있고, 구원이 있으며, 회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오른손을 드시고

지금 이 순간,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제 몸의 연약함 위에 손을 얹어주소서.

제 마음의 상처 위에 당신의 손으로 덮어
주소서.

주님,

저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이 고통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선
포할 것입니다.

저는 이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증거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위해 들려졌노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덮고 있노라!
나는 죽지 않노라!
나는 살아날지어다!
나는 회복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사망의 위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저를 건지시고,
지금도 살아 숨 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생명은 주님을 위한 것이오니,
살아 있는 동안 주의 은혜와 기적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며
상처를 싸매는도다



”[시 147:2]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시 147:3]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무너진 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특히 상심한 자들의 심령을 가장 먼저 돌아보시며, 그들의 내면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이나 이론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손길로,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김연주 자매는 어

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을 눈앞에서 경험한 후, 오랜 세월을 극심한 상실감과 죄책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마음 안에는 깊은 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살아남았지? 왜 나만...?”이라는 질문은 그녀의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그런 상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앙조차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시편 147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 앞에서 그녀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듯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저의 상처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싸매신다고 하시니, 저도 받아주시겠어요?”

그 기도를 시작으로 그녀의 회복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처를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내면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고, 외적으로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마음치유 상담사로 활동하며,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저를 고치신 분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감추거나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꼭 눌러두는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단지 눈으로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마치 찢어진 천을 정성스레 꿰매듯이 우리의 상처를 한 땀 한 땀 싸매시며 다시 숨 쉬게 하십니다. 그분은 상심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상한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한 깊은 아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상처를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를 싸매주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감싸주소서.
제 심령을 만져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보셨노라!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으셨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노라!
내 마음은 회복되었노라!
내 몸은 강건해졌노라!
모든 질병은 떠나갔노라!
모든 어두움은 물러갔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상심한 자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싸매주시고, 다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시고, 다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양약이 됨이라



“[잠 3: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
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 3:8]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깊이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삶은 단순히 도덕적
인 선택을 넘어서 육체적인 치유의 길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
하게 하리라.”

마음이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
는 자는 결국 자기의 판단과 행동으로 자
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악에서 돌아서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치유의 능력을 주십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윤광수 장로님은 고혈압과 당뇨, 골다공증까지 겹쳐 오랜 병치레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자가진단과 인터넷 정보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던 그에게, 어느 날 목사님의 한 마디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장로님, 혹시 스스로 너무 지혜롭다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낮아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그는 집으로 돌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도 오래 다녔고, 말씀도 많이 안다고 여겼지만... 제가 너무 제 생각만 고집했습니다. 이제 그만 제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식단조절도 기도하며, 약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겠다고 결단했고, 무엇보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세 달이 지나면서 혈압과 혈당이 정상화되었고, 병원에서는 뼈밀도 수치가 이전보다 15% 이상 향상되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뱃속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했더니, 정말 내 골수까지 회복되더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몸을 고치기 전, 마음과 영혼이 먼저 고쳐질 때

그 사람의 뼈와 골수, 삶 전체가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제 생각과 지식, 경험을 의
지하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긴 적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교만함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경외합니다.
제가 감히 앞서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따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몸에 양약이 되었노
라!
내 뼈가 강건하게 되었노라!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었노라!

모든 질병은 떠나갔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진짜 치유가 시작되었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김을 멈추게 하시니 감
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제 몸이 살아나고,
제 골수가 윤택해지고,
제 삶이 회복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

하나님의 지혜는
내 온 육체를 강건해 한다



“[잠 4:20]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잠 4:21]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잠 4:22]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며, 능력이며, 치유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며 사는 삶-그 삶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스며들고, 그 지혜가 육체에 강건함으로 나타납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이재형 집사님은 만성 피로와 심한 위염으로 인해 몇 년을 병원과 한의원을 오갔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면역도 무너졌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책상 앞에 앉아 한 장의 성경 말씀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나는 그 생명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잠언 한 장씩을 읽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습니다. 이 말씀이 내 혈관을 흐르게 하소서. 이 말씀이 내 세포에 생명을 공급하게 하소서.”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며, 놀랍게도 그의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소화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병원 검사에서는 위염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왔고, 그는 지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 몸을 고쳤습니다. 내 병을 고친 것은 영양제가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온몸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치유의 길을 걷게 됩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제가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고 가장 참된 지혜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제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소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제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노라!

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노라!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었노라!

그 말씀은 내 온 육체에 건강이 되었노라!

모든 세포는 살아날지어대!

모든 장기는 회복될지어대!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강건하게 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 저의 몸을 만지시고,

저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저의 영혼까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치유의
길임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

마음을 지키라



“[잠 4:23]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지켜
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
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니라”(잠 4:23).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자리
만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나오는 중심이며,
삶 전체를 이끄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결국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몸이 병들기 전에 마음이 먼저 약
해지고, 절망이 찾아오기 전에 마음이 먼
저 상하게 됩니다. 마음의 틈이 생기면 거

기로 병이 스며들고, 무기력이 들어오며, 영혼의 생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마음을 잘 지키는 자는 몸도, 믿음도, 인간 관계도, 삶의 소망까지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살아 있어야 인생이 살아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이영숙 권사님은 이런 진리를 삶을 통해 깊이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우울증과 허리디스크를 앓으며 거의 7년 가까이 집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외출은 커녕 일상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마음과 몸이 모두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라디오에서 들려온 설교 한 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우연히 펼친 성경 말씀, 바로 잠언 4장 23절 말씀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이 말

숨을 낭독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것이다. 내 마음이 살아야 내 몸도 산다.”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눈물과 슬픔이 가득할 때마다, 그녀는 믿음으로 마음에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신다.” 이 단순한 고백과 말씀이 몇 주, 몇 달 이어지자, 그녀의 마음에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허리 통증이 완화되고 불면증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영숙 권사님은 이웃들과 함께 성경을 나누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몸을 먼저 고치신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을 먼저 만지셨고, 몸은 그 뒤를 따라오더군요.”

이처럼 마음은 생명의 출발점이며, 영혼의 중심입니다. 마음이 깨어 있으면 삶 전체가 살아납니다. 마음을 잃으면 아무리 재물이 많고 건강해 보여도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으며, 고난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기도로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절망과 상처가 마음을 어지럽히기 전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하여 생명을 지키시고,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말씀을 제 심령 깊이 새기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육체의 아픔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낙심과 두려움과 분노, 절망과 원망이 제 마음을 덮어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마음의 적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주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속하였노라!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 어떤 병도 내 마음을 파괴하지 못하리라!

그 어떤 고통도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지 못하리라!

나는 내 마음을 지키노라!

그리고 내 몸도 살아나노라!

내 영혼도 강건해지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모든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
다.

이제는 마음이 먼저 살아났고,

몸도 함께 치유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

생명의 근원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

마음의 화평을 누리라



“[잠 14:30]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단지 일시적인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 건강과도 깊이 연결된 영적 원리이자 생명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잠 14:30).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육체적 현상임을 많은 이들이 경험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는 이혜정 집사님은 수년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을 겪었

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심한 통증이 있었고, 진통제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간이 지나며 자신이 앓고 있는 이 질병이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자신을 배신한 친구에 대한 깊은 원망과 미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그녀는 매일 그 사람을 떠올리며 화와 분노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감정의 습관은 어느새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고착되어,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한 주일 예배 중 들려온 설교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잠언 14장 30절을 인용하며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혜정 집사님은 자신의 상태가 정확히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예배 중 자리에서 무너져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제 뼈를 제가 썩게 만들고 있었군요...”

그날 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미워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진심 어린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를 축복합니다”라는 고백을 매일의 기도 속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았던 그 말이, 날이 갈수록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그녀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가락 관절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약의 복용량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혜정 집사님은 그 체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뼈를 치료한 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용서였습니다. 화평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현실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마음속 깊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풀리지 않은 원망이, 치유되지 않은 분노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에서는 그 미움과 상처가 당신의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이름을 조용히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나는 그와 화평을 이루겠습니다.”

그 고백이 입술에서 시작되면,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몸도 함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화평은 곧 생명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단순한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영혼을 회복시키고, 육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치유 통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랜 시간 뿌리내려 있던 미움과 시기를
이 시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상처받았던 사람을 떠올립니다.
저를 배신했던 사람, 저를 아프게 했던 사
람,
제 마음을 찢어버렸던 그 이름을 지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는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그와 화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분노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시기는 뿌리째 뽑힐지어다!
내 마음은 평안할지어다!
내 뼈는 살아날지어다!
내 육체는 강건해질지어다!
나는 온전히 회복되었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 화평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화평을 통해 육신의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살아 숨쉬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성음을 지키는 것이라



”[잠 25:28] 자기의 마음을 제어
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
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읍 전체가 무
너진다

성경은 인간 존재를 ‘성읍’에 비유합니다.

[잠 25:28]에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
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음
과 같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읍’은 단지 건물과 집이 있는 도
시가 아니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생명과
삶을 지키는 방어체 공동체 구조를 뜻합니
다. 이 말씀은 곧,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삶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노출
되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본문에서 '제어하다'는 개념은 히브리어 <마차르>의 개념과 연결되며, 이는 억제하고, 절제하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내면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성읍 전체를 지키는 '영적 통제력'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은 곧 자기보호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며, 감정의 문이 열리면 유혹이 들어오고, 유혹은 탐욕을 낳고, 탐욕은 죄로 이어지고, 결국 죄는 죽음이라는 무너짐의 끝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한순간의 분노, 억울함, 시기, 질투, 좌절, 수치심...

이 감정 하나가 들어와 마음의 문을 흔들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 삶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마음의 성벽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재능과 자원을 갖고 있어도, 결국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무너짐 앞에 속수무책이 됩니다.

니다.

절제는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은혜의 방패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정진호 집사님은 수년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로 인해 위장병, 고혈압, 두통 등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늘 흔들렸고, 감정이 폭발하면 가족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교회생활도 힘들어질 만큼 삶 전체가 무너진 듯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말에 흔들리고, 왜 이렇게 자주 무너지는가?"라는 질문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 25:28] 말씀 앞에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진 사람과 같다...”

그는 주저앉아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의 성벽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제 감정이 저를 삼키지 않게 하소서. 저에게 절제할 힘을 주소서. 성벽을 다시 쌓게 하소서.”

그때부터 그는 매일 아침 기도하며 선포했습니다.

“나는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벽이 되신다. 나는 성령의 절제를 따르며 살 것이다.”

그 고백과 선포는 실제로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위장 기능이 호전되고, 혈압이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대화와 웃음이 회복되었고, 예배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저의 병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무너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절제를 배우니 마음이

회복되었고, 성벽이 다시 세워졌으며, 제 몸과 삶 전체도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의 성벽은 어떠합니까?
틈이 나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 염려, 질투, 낙심 같은 감정이 성벽 사이로 스며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 틈을 메울 때입니다.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절제(갈 5:23)’는 우리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제어할 힘을 주십시오.

제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워 주십시오.
제가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질서 속에서
살게 하소서.”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당신 안에
성벽을 세우시고, 무너졌던 삶의 질서
와 건강,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마음을 쉽게 잃어버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세상의 욕망에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의 성벽이 무너졌고, 저의 삶은 무방비
로 공격받았습니다.

이제는 돌이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제어할 힘과 은혜
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게 하시고,

세상의 정욕을 끊게 하시며,
다시 단단한 성벽을 쌓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노래!
나는 더 이상 분노에 지지 않노래!
나는 더 이상 정욕에 휘둘리지 않노래!
내 마음은 절제되고 있노래!
나의 성벽은 다시 세워지고 있노래!
모든 질병은 성벽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강건해지고 있노래!
나는 자유하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붙드셔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
다.
절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4

하나님의 치유는 곧 빛이다



“[사 30:26]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어둠을 뚫고 오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어둠 속에 비추는 찬란한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은 단지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회복과 능력을 담은 빛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장면을 예언합니다.

“[사 30:26]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

나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날, 달빛조차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일곱 배나 강해진다는 말씀은, 회복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얼마나 철저히 몰아내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구절 속 ‘상처를 싸매시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하바쉬>이며, 이는 단지 치료 행위를 넘어서 애정을 담아 감싸 안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뜻합니다. 또 ‘고치시다’에 해당하는 <마카>는 깊은 곳에 난 상처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아픔, 오래된 상처, 숨겨진 절망까지도 뚫고 들어오는 빛이며, 모든 어둠을 쫓아내는 권능입니다.

경기 용인에 사는 한지우 자매는 십 대 시

절부터 깊은 내면의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자해, 불면증, 무기력...

수많은 상담과 약물 치료가 이어졌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웠던 것은, 그 어둠이 자기 자신과 삶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 중에 한 목사님이 [사 30:26]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싸매실 때, 너에게 빛이 임한다. 그 빛은 햇빛보다 밝고, 네 영혼을 고친다.”

그녀의 심령 깊은 곳에서 무너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말씀이 단지 귀에 들리는 문장이 아니라, 심령을 꿰뚫는 빛처럼 임했습니다.

지우 자매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며 기

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빛을 주세요. 저를 고쳐 주세요.”

그날 밤, 수년 동안 약 없이는 잠들 수 없었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한밤의 잠은 단순한 수면 이상의 하나님의 손이 덮는 회복의 시간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말씀을 노래로 부르며, ‘말씀의 빛’ 아래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자해의 충동은 사라졌고, 불면은 사라졌으며,

고통이 주도하던 영혼은 찬양과 감사로 채워졌습니다.

지금 지우 자매는 찬양 인도자이자 간증자로 살아가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저를 덮자 모든 어둠이 도망갔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 전체가 다시 숨 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몸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 영혼의 눌림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안에 어둠이 자리 잡고 있
고,

그 어둠이 점점 삶의 여백을 삼켜가고 있
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지금도 살아 있
고, 빛처럼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
다.

그 빛은 세포를 깨우고, 마음을 덮고, 눌린
감정을 회복시키며,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 30:26]을 매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 상처를 싸매소서. 주의
빛으로 저를 덮으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그 빛은 어둠보다 강하고, 상처보다 깊고,

절망보다 높고, 질병보다 크며,

무너진 당신의 삶 전체를 다시 숨 쉬게 할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의 상처 위에 빛처럼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세상으로부터 맞고, 사람들에게 상처
받았으며,

스스로 자책하며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
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제
게 임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 몸을 싸매소서.
제 마음을 싸매소서.
제 모든 질병과 상처를 주님의 광명으로
덮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였노라!
그 빛은 칠 배나 밝은 생명의 광선이라!
그 빛은 내 상처를 녹이고,
그 빛은 내 질병을 쫓아내고,
그 빛은 나를 완전히 고쳐놓았노라!

내 세포마다 빛이 임하였노라!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빛이 비쳤노라!
모든 어둠은 떠나갔노라!
나는 다시 살아났노라!
나는 다시 웃게 되었노라!
나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빛으로 제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
니다.

빛으로 저를 고치시고,

희망의 광선으로 저를 살려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도다



“[사 38:16]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사38:17]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건강한 왕이었고, 나라를 잘 다스리던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병이

찾아오자, 그는 곧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 심령이 살아 있는 것도 주님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치료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이 기도는 단지 육체의 회복을 바라는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의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겪은 이 모든 고통조차도, 결국은 평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오래전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남 광주에 사는 박기범 집사님 역시 그런 분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간경

화 말기로 투병하던 어느 날 밤, 병실에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살고 싶습니다. 저도 나음을
입고 싶습니다. 저도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박 집사님은 매일 이사야 38장
16~17절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
의 고통은 결국 평안으로 인도하실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절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선포와 함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
다. 그의 몸 상태는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
고, 급격히 높아졌던 간 수치도 서서히 안
정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증인의 삶을 살
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환자들을 위
로하고, 교회에서 간증을 하며,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 심장박동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를 등 뒤로 던지시며, 새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히스기야처럼, 박 집사님처럼,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되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이 글을 읽는 당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무릎 꿇고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부르짖었듯이
저도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
고 엎드립니다.

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의 심령도, 저의 육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하소서.
저를 살려주소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
소서.
제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등 뒤에 던지시며,
다시는 기억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드셨노라!
나의 질병은 떠나갔노라!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치셨노라!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노라!
나는 다시 살아났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치유하시고
죄를 덮어주셨으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

하나님은 내 허물을 도말하시고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도다



“[사 43:25]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흔히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은 죄책감과 정죄의 그림자를 남기고, 그 마음은 몸보다 먼저 병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정죄에서가 아니라,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의 허물을 도말한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의로움을 조건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죄를 덮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먼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이은실 자매는 젊은 시절 낙태로 인해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자책과 슬픔이 맴돌았고, 그것은 결국 우울증과 불면증, 심한 위경련과 면역력 저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병원을 수없이 드나들었지만, 몸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치유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병원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왜 계속 기억하니?”

그 음성 앞에서 그녀는 무너졌고, 뜨겁게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이은실 자매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두 시간 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수면이 회복되고, 위통이 사라지고, 약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용서하셨고, 그 용서가 제 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가 낫기 전에,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치유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음의 은혜를 믿을 때, 비로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정죄는 병을 깊게 하지만, 용서는 생명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의 회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엎드립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오늘 저의 삶의 선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기억하고 있던 죄,

제가 붙들고 있던 허물을
이제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저도 이제 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도말하셨노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노
라!
나는 용서받았노라!
나는 자유하였노라!
나는 치유받았노라!
모든 질병은 이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죄감은 사라질지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과거를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내게 생명을 다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온전히 자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도다



“[사 53:5]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치유는 결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는 고통을 통과한 결과였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육체와 마음의 회복은, 주님의 고난과 맞바꾼 은혜의 열매입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단순한 가죽끈이 아니었습니다. 채찍의 끝마다

납덩이와 날카로운 짐승의 뼈 조각이 박혀 있어,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뜯기고 근육이 드러나며, 몸은 산산조각이 나듯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그렇게 처절하게 부서졌습니다. 단지 형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질병, 통증, 아픔은 이미 주님의 채찍 자국 위에 올려졌습니다. 주님의 상처는 단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위한 지불된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해 더 이상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정미영 권사님은 자궁 근종으로 인해 오랜 시간 통증과 불편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수술을 앞둔 상황이었고,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예배 중 말씀이 그녀의 영혼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

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채찍에 맞으셨다면, 제가 더 이상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채찍을 믿습니다. 저를 낮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이후, 그녀는 매일같이 자신의 병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채찍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몇 주 뒤, 병원 정기 검진 결과에서 자궁 근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고, 수술 없이 회복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채찍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질병은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치유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5).

이제 우리의 뭇은 단 하나입니다. 그 진리를 믿는 것, 선포하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

당신의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채찍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주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치유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머리에 찢린 가시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등에 내려졌던 무자비한 채찍을 기억합니다.
그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상함과 징계를 통해 내가 오늘 살아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채찍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 채찍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의 채찍에 의해 치유되었노라!
모든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나갔노라!
나의 세포는 회복되었노라!
나의 장기는 새로워졌노라!
나의 통증은 사라졌노라!

나는 더 이상 병자의 자리에 있지 않노라!
나는 평강을 누리노라!
나는 자유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채찍의 흔적 안에서
제가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
니다.

이제는 제 입술로, 삶으로, 몸으로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
었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사 57:17]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사 57:18]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사 57:19]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전

히 동일하신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 있든, 가까이 있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며, 하나님의 마음은 상한 자와 패역한 자, 심지어 등 돌린 자를 향해서도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종종 자신의 탐심과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경고마저 무시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순간에도, 우리는 더 완고해져 깊은 질병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사 57:18).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방황을 알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치유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기훈 형제는 한때 신앙에서 멀어져 방탕한 삶을 살다가, 간경변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져 있던 어느 날 밤, 그는 말씀 오디오를 통해 한 구절을 듣게 됩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 말씀 앞에서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저를 고쳐 주세요.” 그리고 그 고백 이후, 간 수치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몇 주 후 그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어진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내가 돌아서자 곧바로 치유의 손을 내미셨
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
니다. 그분은 돌아오는 자를 인도하시고,
혼자 아파하며 울고 있는 자에게 다가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고치겠다. 너를 다시 평강의 길
로 인도하겠다.”

그 회복의 손길은 오늘도 열려 있으며, 그
은혜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향해 있습니
다. 당신이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치유하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인
도하실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멀리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주님을 떠났
습니다.
제 욕심과 탐심이 주님을 슬프게 했고,
저의 질병은 제 잘못의 열매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나를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저에게 위로를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돌아왔노래!
나는 회개했노래!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몸과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
시리라!

나는 나음을 입었노래!
나는 다시 살았노래!
나는 고침을 받았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멀리 있는 저를 향해 다시 손을 내밀어 주
셔서 감사합니다.
내 슬픔을 안으시고,
내 질병을 치료하시며,
다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으로
치유하라



“[사 58:6]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 58:7] 또 주
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
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
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 58:8] 그
리하면 네 빛이 아침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
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음
식을 끊는 행위가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

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행위이지만, 성경은 그 금식의 진정한 본질이 사랑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많은 이들이 육체의 질병이나 문제를 놓고 간절한 치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단지 식사를 끊는 겸비함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적인 절제만을 행하며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삶에 대한 강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금식은, 결박을 풀고, 멍에를 꺾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나누는 삶의 실천입니다(사 58:6-7). 이는 금식의 시작이 자신에 대한 절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랑의 회복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본문에서 ‘결박’은 히브리어 <하르초브>, ‘멍에’는 <모타>, ‘숨지 아니함’은 <알타알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며, 단순히 사회 구조적 문제를 넘어서 인간관계의 죄, 정서적 단절, 방임, 무관심과 외면까지를 포함하는 깊은 내면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네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은 혈육 간의 관계를 끊고, 외면하며, 무시한 채 행하는 금식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천에 사는 강준호 집사님의 삶이 바로 이 말씀에 비추어 회복의 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는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시력이 거의 상실될 위기에 있었고, 며칠씩 금식하며 치유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병세는 점점 나빠졌고, 마음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야 58장을 묵상하던 중, “네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구절이 그의 마음을 강

하게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20년 넘게 대화조차 끊었던 여동생이 떠올랐고, 연락을 끊었던 형제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금식하면서도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치유를 구하면서도 용서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했고, 형제들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며 멀어진 관계를 하나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 안과 검진에서 망막에 있었던 염증이 사라졌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고, 시력도 회복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제 몸도 고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 없는 금식을 받지 않으시며, 용서 없는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습니다. 돌봄이 없는 절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육체적으로 굶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미움을 내려놓고, 따뜻한 손을 내미는 행동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와 같은 사랑의 회복, 관계의 회복, 마음의 회복입니다. 그런 금식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때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사 58:8).

하나님의 치유는 점진적인 회복이 아니라, 때로는 급속하며 단호하게 임합니다. 그 치유는 단지 병의 제거가 아닌, 마음과 관계와 육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전인적 부흥입니다. 그 치유의 광선은 마치 어둠을 뚫고 비치는 아침 햇살처럼 우리 삶에 임하

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굶지 말고, 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그때 너를 고칠 것이다.”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빛으로 임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에 회복의 새날을 여실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행하던 금식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음을 회개합니다.

억울하게 묶어둔 사람들을 마음으로 풀어 주지 못했고,

돌아보지 않은 가족과 이웃을 외면하며 기도만 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결박을 풀고, 멍에를 끌려주며,
사랑하지 못한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린 자에게 나누고, 외로운 자를 맞이하
며,
내 가족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결박을 푸는 자로 회복되었노래!
나는 멍에를 꺾는 자로 회복되었노래!
나는 사랑을 나누는 자로 회복되었노래!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셨노래!
내 치료는 지금 이 순간 급속히 진행되고
있노래!
내 육체는 회복되고,
내 마음은 평강으로 채워지고,
나의 삶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를 멈추게 하시고,
관계의 회복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의 속도가 더뎠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급속한 회복이 제 삶에 임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

빠로 견고케 되고 물댄 동산같이 된다.



“[사 58:9]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사 58:10]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사 58:11]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과 감정, 관계와 말, 환경과 미래까지, 그분의 회복은 전인적이며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한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삶 전체에 깊이 스며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인적 치유와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성경은 이사야 58장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그리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할 것이며... 여호와가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감정의 회복이 아닌, 태도의 변화와 말의 회개를 통해 회복이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멍에’는 히브리어 <모타>로, 다른 사람에게 무겁게 지우는 짐이나 통제와 억압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말 한마디나 눈빛 하나가 누군가를 짓누르고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내려놓아야 할 멍에입니다.

‘손가락질’은 정죄와 비난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지만, 그 정죄는 결국 자신을 속박하는 영적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허망한 말’은 히브리어 <다바르 쇼>로 표현되며, 헛된 말, 절망의 말, 비방과 거짓, 그리고 의욕 없는 말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입술로 병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왜 입술로 절망을 퍼뜨리고 있지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을 말로 확대하는 자가 아니라, 말로 생명을 심고 소망을 나누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영숙 권사님의 삶에 이 말씀이 실제로 임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걷는 것조차 어려웠고, 입원한 상태에서도 남편과 자녀에 대한 원망을 입버릇처럼 되뇌곤 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낫겠어...”

“이 고생을 누가 알아주겠어...”

그러던 중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던 그녀는 이사야 58장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찔렀고, 병실 침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입술로 병을 키웠습니다. 이젠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고침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기도 이후, 그녀의 몸에 눈에 띄는 변화

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통증이
완화되었고, 3주 후에는 보조 없이 병실 복
도를 걷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염증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고, 뼈 조직도 회복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담
대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이 바뀌자, 내 뼈를 견고
하게 하셨습니다. 말이 변하자 생명이 돌
아왔습니다.”

회복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회복은 태도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씌우고 있었던 멍에를 벗기
고, 정죄의 손가락을 거두고, 허무한 말 대
신 생명의 말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치유는 영혼과 육체, 환경까지도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누군가에게 멍에를 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회개의 때입니다.

지금이 말의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지금이 고백을 바꾸고, 태도를 새롭게 할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흑암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하시며, 당신의 뼈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빛은 단지 몸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영혼과 삶 전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새날이 될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저의 말이 누군가에게 멍에가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의 정죄와 판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손가락질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허망한 말이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내 병을 붙들게 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 입술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소서.

빛을 말하게 하소서.

생명을 말하게 하소서.

회복을 말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멍에를 제하노라!

나는 손가락질을 멈추노라!

나는 허망한 말을 끊노라!

이제 내 입은 기도와 감사로 채워질지어
다!

하나님께서 내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리
라!

하나님께서 내 뼈를 견고케 하시리라!
나는 물댄 동산 같고,
내 삶은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샘 같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며,
마른 뼈에도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
나는 치유자이다.



“[사 61:1]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건강을 되찾고, 고통에서 벗어나 오래 사는 것에 그치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침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간직하는 데 머물지 않고, 오히려 다른 병든 자들에게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회복은 나 한 사람을 위한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은 예수님께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회당에서 직접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향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나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마치 덮개처럼 임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성령의 임재는 단순한 감동이나 느낌을 넘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어서 ‘기름부으셨다’는 표현에 쓰인 단어는 <마샤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명을 위임하시고, 그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의미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부르심’을 말합니다. 치유의 은혜는 곧 사명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김지은 자매의 삶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공황장애와 위장 질환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 받았습니다. 기도도 하고, 치료도 받고, 상담도 병행했지만 마음과 몸이 동시에 무너지는 어려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야 61장을 묵상하던 어느 날, 그녀의 마음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같았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너는 이제 환자가 아니다. 너는 치유자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믿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환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고
침받은 자입니다. 나는 치유의 통로입니
다.”

이 선포는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니었습니
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
녀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선언
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작은 기도 모임에
서부터 다른 이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치유의
기도를 드릴 때, 정작 자신의 불면과 위장
통증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
칠이 지나자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밤에
도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
백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고침받은 것은, 누군가를 고치기 위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단순히 고치시고 끝내지 않

으십니다. 치유는 곧 기름부음의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은혜의 수혜자'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며, 우리를 사명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는 치유자입니다. 이 말은 결코 교만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부르심이자 사명입니다. 내가 고침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수 있으며, 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너진 이들에게 회복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시고, 또 다른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의 고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통해 누군가를 일으

키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치셨고, 이제는 당신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고치기 원하십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병든 자”로만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유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의 기름부음이 내 위에 있기에
내가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위로하며,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끄는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노라!

나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었노라!

나는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치유를 흘려보내는 자이노라!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에는 생명이 있도
다!

내 손에서 나가는 기도에는 회복이 있도
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상한 자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 영혼을 치유하신 후

치유의 자리에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를 통해

포로 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상한 자가 회복되며,
갇힌 자가 놓임을 얻는 것을 보게 될 것입
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들으시고
치유하신다.



“[렘 17:14]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단지 멜로디에 실린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언어가 되어 울려 퍼지는 고백이며, 눈물이 땀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살아 있는 예배입니다. 찬송은 기분이 좋을 때만 나오는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올려지는 찬송은 그 자체로 순결한 믿음의 증거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의 심령은 깊은 절망과 상실 속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렘 17:14]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
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
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나의 찬송’이라 부릅니다. 히브리어 <테힐라>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 찬송이 머무는 자리에 치유, 곧 <라파>가 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는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결코 흘려듣지 않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이며, 하나님은 그 향기가 머무는 자리에 시선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머무는 곳, 그 자리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부산에 사는 정혜림 권사님의 이야기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며, 기도조차 힘겨울 만큼 기력이 쇠한 상태였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었고, 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말라버린 몸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찬송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 숨결에 실어 다음의 찬송을 읊조렸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녀의 찬송은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

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크게 울려 퍼진 찬양이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통증 속에서도,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찬송의 자리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혈액 수치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의사도 예상치 못한 속도로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달 후 퇴원한 날, 그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듣고, 나를 일으켰습니다.”

찬송은 회복의 통로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작정하신다면 그 누구도 그 치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임재는 곧 하나님의 권능이며, 그 권능이 머무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가 임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깊은 아픔 속에 있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무릎 꿇을 힘조차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찬송이 시작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소리 내어 노래할 수 없다면 속으로라도 읊조리십시오. 숨결에 실어 주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찬송이 올라오는 그 자리에 시선을 멈추시고,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찬송이 있는 자리에 권능이 머물고, 권능이 머무는 곳에 치유는 속히 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도 찬송합니다.
몸이 약하고 피곤해도 찬송합니다.
눈물이 흐르고, 고통이 밀려와도
나의 영혼은 주를 찬송합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내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고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저는 반드시 나을 줄 믿습니다.
주의 구원이 나를 덮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오늘도 찬송할지어대!
나의 입은 하나님을 향해 열릴지어대!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을 받으시며
나를 치유하실지어대!

나의 질병은 사라질지어대!
나의 고통은 멈출지어대!

나의 아픔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
다!

나는 나았노라!

나는 치유되었노라!

나는 하나님의 찬송 가운데 다시 일어섰노
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연약한 찬송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찬송을 통해 제 질병을 치유하시니 감
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

나의 질병을 치유하사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렘 30:17] 나 여호와가 말하노
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
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
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
게 하리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예레미야 30장에는 한 시대의 슬픔과 상처
를 담고 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쫓
겨난 자”, “찾는 자 없는 시온”이라는 말입
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듯한 심정으
로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절절한 표현
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만의 이야
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오랜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여전히 반복되

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멀어지고, 사람들의 말 한 마디는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찌르게 됩니다. “왜 아직도 낫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믿는데 왜 여전히 아프신 거예요?”와 같은 말들은 겉으로는 동정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병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도 잊혀진 존재가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렘 30:17] 내가 너를 치료하며, 네 상처를 고쳐 낫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치료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 “고쳐 낫게 하다”는 <아알레>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병의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깊은 원인까지 치유하시고, 삶 전체를 회복하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찾는 자가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고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고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롱을 영광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조미선 집사님의 간증은 이 말씀의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조 집사님은 희귀 자가면역질환으로 6년 넘게 외출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위로와 관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끊기고,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안 됐다”는

말로 조롱과 안타까움을 가장한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매일같이 입술로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사람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며 매일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던 중, 병원 검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면역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병세가 빠르게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 집사님은 예배당으로 돌아와 손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나는 다시 찾는 자가 되었노라!” 그 고백은 단지 병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혹시 지금 병든 자리, 외로움의 자리,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네 상처를 고쳐 낫게 하리라. 네 삶을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으로 채우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육체만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과 깨어진 관계, 침묵 속의 눈물까지도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찾고 계신 분’이며, 당신을 ‘다시 세우실 분’이십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쫓겨난 자라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낮게 하시고 계심
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몸을 고치소서.
나의 깊은 상처를 싸매소서.
사람이 흘린 조롱의 말 위에
주의 은혜의 손을 얹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쫓겨난 자가 아니노라!
나는 찾는 자 없는 존재가 아니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셨노라!

나를 조롱하던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지어다.

나를 멸시하던 자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고개를 숙일지어다.

나는 다시 살아났노라!

나는 치유되었노라!

나는 회복되었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

나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평강과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렘 33:6]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낮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에 풍성함을 그들
에게 나타낼 것이며”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예루살렘은 한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불순종
으로 인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흩어졌으며, 성벽과 성소는 물론이고 사람
들의 마음과 믿음까지 깨어져 버린 듯 보
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무너졌
고, 회복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
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은 이렇게 시작됩니

다.

“보라!”

이 단어는 단순히 무언가를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히네’는 “깊이 주목하라”, “지금부터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강한 초청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진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리라.” (예레미야 33:6)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전인적 치유와 회복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치료하다(라파)’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상처를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은 곳까지 만지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회복을 뜻합니다.

‘고쳐 낫게 하다(알레)’는 병든 곳을 온전히 회복시켜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이고,

‘평강(shalom)’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질서를 말합니다.

‘진실함(에메트)’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시대는 포로된 예루살렘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당신의 몸이 무너졌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네 상한 곳을 고쳐 낫게 하리라.

네 삶에 평강을 주고,

네 빈 곳마다 풍성함으로 채우리라.”

이 말씀을 삶으로 붙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정윤 자매는 오랜

세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병은 악화되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운 날들이 이어졌고, 약과 물리치료에도 몸은 점점 굳어만 갔습니다. 마음엔 낙심이 자리했고, 희망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무너진 성, 예루살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고치신 분이셨다. 그렇다면 나도 고치실 수 있다.”

그녀는 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너진 예루살렘처럼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그 성을 치료하신 것처럼,

저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은 하루하루 쌓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7일째 되는 날,
그녀는 스스로 계단을 걸어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제 병을 고치신 분이 아니라,
제 마음에 평강을 주셨고,
제 삶에 다시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너진 몸을 일으키시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절망의 자리에 살롬과 에메트-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몸이 지치고 마음이 상해 있진 않습
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
십니다.
당신의 삶을 살롬의 성벽으로,
에메트의 터 위에 견고하게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 회복의 손길이 오늘 당신에게도 임하기
를 기도합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을 향해
“내가 이 성을 치료하리라” 선포하셨던 그
음성을
오늘 제 영혼에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
한 성전입니다.
하오니 이 시간,
저의 상한 몸을 고쳐 주옵소서.
제 안의 무너진 마음을 낫게 하여 주옵소
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통이 아니라
평강임을 믿습니다.
저의 삶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과 풍성함으
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셨노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풍성함을 채우고 계시
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부를 때,
이미 들으셨고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겔 34:15] 나 주 여호와가 말하
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겔 34:16] 그 잃어버린 자를 내
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
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하늘에만 계신 전능자가 아니
라, 지친 인생 한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시
는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길을 잃
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조차 그분은 외
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직접 다가와 우

리를 돌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목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방치하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닌 자신의 욕망에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어 너희를 찾고, 너희를 싸매고, 강하게 하리라.” (에스겔 34장 요약)

이 하나님의 선언은 단지 옛 시대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순간, 병상에 있는 우리에게, 마음이 무너진 당신에게 여전히 유효한 살아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질병 가운데 지쳐버린 나,
상처 입은 마음에 주저앉은 나,
사람들 사이에서 외롭고 잊힌 나,

실패와 수치에 눌려 도망치고 싶은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너를 찾고, 싸매며,
강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눕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쉼을 넘어섭니다.

양이 눕기 위해선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
어야 한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없고, 갈등이 없으며, 배가 고프
지 않고, 해충이 없는 상태.

즉, 평안하고 안전해야만 눕습니다.

양은 스스로 이 조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목자가 반드시 주변을 정돈하고 보호해줘
야만 눕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회복과 진
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목자이십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전은경 권사님은 오랜 시간 신장투석을 받으며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점점 멀어져 가는 느낌 속에 마음까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읽게 된 에스겔 34장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내가 그분의 양이라면, 주님은 나를 싸매실 것이다."

그 말씀은 그녀 안에 새로운 소망을 불러 일으켰고,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며,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4개월 후,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점차 회복되었고, 투석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의사들도 예상하지 못한 이 회복의 여정을 통해, 전 권사님은 담대히 말합니다.

“나는 그날 이후 다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
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삶 전체를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몸의 회복은 물론이고,

마음의 평안, 관계의 회복, 믿음의 회복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병상에 있습니까?

외롭고, 두렵고,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눕게 하리라.”

“내가 너를 싸매고 강하게 하리라.”

그분은 결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목자의 손길로 당신의 삶을 안전하게, 회복되게, 풍성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 고백 속에,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쫓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상처 입은 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헤매고 지쳐 있을 때도
당신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깊은 상처까지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품 안에서 안식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잘 아시고
저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뿐이
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강하게 하소서.
저의 상한 몸을 고쳐 주소서.
저의 병든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고,
나는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는 하나님



“[말 4: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말 4:2)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 이후, 절망 가운데 있던 때에 주신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들은 율법도 성전도 잃고, 회복의 가능성조차 없어 보이는 흑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가 내 이름을 경외하면, 나는 다시 너희를 비출 것이고,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라고 약속하

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용된 '의로운 해'는 히브리어로 *'세메쉬 체다카(Shemesh Tzedakah)*로, 단순한 햇빛이 아니라 *'정의와 회복, 새 생명을 비추는 태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시는 의사가 아니라, 어둠 속에 묻힌 삶 전체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창조 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은 고대 근동에서 태양신이 갖고 있다고 여겨졌던 생명력의 상징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치료의 빛을 비추는 분이라는 영적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병든 자에게 하신 살아 있는 약속입니다. 경외함이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태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 자를 반드시 찾아오시고, 빛으로 감싸 안으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암 말기 판정을 받은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그날 밤, 권사님은 혼자 예배당 의자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병원도 저를 포기했고, 사람들도 위로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의 의로운 해이심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이 저에게 평강으로 채워지게 해 주세요.”

그날 밤, 권사님은 말씀이 적힌 벽걸이 달력을 보며 눈물을 흘리다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밤, 온 몸을 감싸는 따뜻한 빛을 경험하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식욕이 돌아오고, 통증이 사라

진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몇 주 후,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완전 관해(완치)에 가까운 회복을 확인했고, 권사님은 그 이후 지금까지 수년간 건강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광선은 그냥 따뜻한 햇빛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의 어둠, 죄의 그림자, 절망의 눌림까지도 녹여내는 생명의 광선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마음을 겸비하여 찾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빛은 단지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서, 삶 전체의 회복과 기쁨의 춤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치유의 빛 아래서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뛸 수 있으며,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쁨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빛을, 그 치료를, 그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
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당신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의 자비와 사랑 때문
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을 경외합니다.
세상의 의지처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치료자이심

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며, 그 해의 광선에는 치
료의 능력이 있다고.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 치유의 광선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비
추어 주옵소서.

내 영혼 깊은 곳에 쌓여 있는 슬픔, 두려움,
낙심을 밝혀 주시고

내 몸 속에 숨어 있는 모든 질병의 뿌리를
뽑아 주옵소서.

어둠은 물러가고, 고통은 사라지며,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나는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광선이 나를 덮고 있
음을.

나의 뼈가 강건하게 되고, 내 마음에 기쁨

이 회복되며, 내 삶이 다시 뛰기 시작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의 빛을 보내 주신 하나님,

다시 떨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평강과 생명을 주시는 하
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

주님은 모든 앓는 자를 치유하십니다.



”[마 4:24]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갈릴리에서 수리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절박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모든 앓는 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앓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코스>, 즉 ‘심각한 상태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감기나 일시적 불편함이 아니

라, 삶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의 육체적·정신적·영적 질환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이들은 ‘각색 병’-즉 다양한 질병(헬라어 <노소스>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포함되었습니다. ‘고통에 걸린 자’는 원어로 <바사노스>, 고문처럼 극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귀신 들린 자’(<다이모니조마이>), ‘간질하는 자’(<셀레니아조마이>), ‘중풍병자’(<파랄루티코스>)-모두가 이 세상의 치료법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저희를 고치시더라.”

헬라어 <테라페우오>는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닌, 돌보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삶을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이은미 권사님은 6년 전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전이가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며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마태복음 4장을 묵상하던 중,

“모든 병, 모든 고통, 모든 간질, 모든 중풍, 모두를 고치셨다”는 이 구절에서 마음이 붙잡혔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하루 세 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 저도 그 ‘모든’ 속에 포함됩니다. 저도 고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지금은 매일 새벽기도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과거에만 치유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모든 앓는 자를 고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당신도 그 '모든' 속에 포함됩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병을 치유해 주소서."

"나 주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
듯이 나의 병을 치유해 주소서."

"나 주님께서 모든 앓는 자를 치유해 주셨
음을 믿습니다. 모든 각색 병을 치유하시
고 고통 걸린 자를 치유해 주셨음을 믿습
니다. 모든 귀신 들린 자와 간질하는 자를
치유해 주시고 모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
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
악된 삶으로 인해 질병이 내게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나의 질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소서.”

“나의 병든 손을 내 입니다. 나의 병든 마음을 내 입니다. 나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어다.”

“나 주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듯이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음을 믿노라.”

“내게 있는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세포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고통을 파쇄해 주시고 모든 질병세포를 파쇄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질병으로부터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8

문둥병자를 만지신 예수님.



“[마 8:2]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
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
거늘 [마 8:3] 예수께서 손을 내
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
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
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
여진지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예수님 앞에 한 문둥병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는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부정하다!” 외치며 스
스로를 격리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누구도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 몸은 썩어가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
은 아픔은 아무도 자신을 만져주지 않는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하지 않았던 그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과 동시에 그의 문둥병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단지 질병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외로움까지도 만지신 것입니다.

이 치유의 손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향해 있습니다. 병든 몸뿐 아니라, 죄책감으로 무너진 마음, 거절당한 기억, 고립과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영혼까지도 예수님은 다가와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지금 이 말씀은

당신에게도 하시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서울의 김성훈 형제는 오랜 피부병으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8장의 이 말씀을 읽다가 흐느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그 문둥병자처럼 만져 주세요.”

그날 밤, 그는 꿈에서 따뜻한 손길을 느꼈고, 그 이후 피부는 놀랍도록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안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아라.”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시선과 내면의 수치심으로 움츠
러든 저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다가갈 수 없던 자리에서
주님은 먼저 손을 내미셨고,
아무도 만지지 않던 저를 직접 만져주셨습
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그 한 마디로
제 병든 몸과 영혼이 새로워질 것을 믿습
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께 무릎 꿇고 고백합니
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
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모든 상처는 예수님의 손에 의해 싸
매질지어다.

나는 깨끗함을 입었고,

나는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되었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손길로 오늘도 제 삶에 기적을 베푸소
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



“[마 8:16]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마 8: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
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하루가 저물어 갈 때, 예수님께로 몰려온
사람들은 어둠보다 더 깊은 절망 속에 있
었습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
고 아무 소망도 기대도 없이 살아가던 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
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
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

를 다 고치시니...”

여기서 “다 고치시니”라는 표현은 단순히 몇 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도 예외 없이 고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사건을 구약 이사야의 예언과 연결시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은 멀찍이 떨어져 병든 자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나를 대신해 아파하셨고, 그분은 죄 많은 나를 대신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그것을 짊어지셨기에, 나는 더 이상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부산에 사는 김은정 자매는 난소암 3기 판정을 받은 뒤, 매일 마태복음 8장 17절을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제 병을 제가 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미 짊어지셨으니까요.”

기적처럼 암세포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항암 5차가 끝나기도 전에 의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강해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기에, 나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 짐을 혼자 지고 계십니까?

그 짐은 이제 주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분은 이미 그것을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물어가는 하루 끝에
절망의 무게를 안고 당신께 나아옵니다.
나의 병을, 나의 고통을, 나의 놀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은 모든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셨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에게도 그 말씀이 임하게
하소서.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담당하노라.”
“내가 너의 병을 이미 짊어졌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병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셨으므로,
나는 자유하노라! 나는 온전하노라! 나는
치유되었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제 어깨 위의 짐을 대신 져 주시니 감사합
니다.
주님의 어깨가 저의 구원이요,
주님의 십자가가 저의 치유임을 고백합니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

믿음으로 겹옷을 만진 여인처럼,
나도 주님의 능력을 만집니다



“[마 9:20]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겹옷 가를 만지니
[마 9:21] 이는 제 마음에 그 겹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
라
[마 9:22]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
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
니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 왔습
니다. 율법에 따르면 혈루병은 부정한 병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그
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취를 감춘 채 살
아야 했습니다.

병은 몸만이 아니라 영혼과 관계, 삶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단 한 가지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당시 유대인들이 입던 겹옷에는 <치씨트>라고 불리는 네 개의 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상징이었고, 여인은 바로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녀는 앞에서 외치지 않았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하늘을 감동시켰고,

예수님은 군중을 멈추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라’는 말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인정이자 회복의 선언

입니다.

그녀는 육체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수치와 고독, 죄책감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경북 영천에 사는 김세정 집사님은 15년간 자궁 출혈로 병원을 전전하다가 어느 날 이 본문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날 밤, 평소와 다르게 출혈이 멈췄고, 이후 3년 동안 다시는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은 단순한 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나오는 접점이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만졌고, 주님은 사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손을 뻗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옷자락은 멀리 있지 않습니

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주님은 당신을 돌아보시고 치유하십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12년을 외로이 앓던 여인의 믿음을 오늘
제 믿음으로 삼습니다.

사람들 틈에 가려졌던 그녀를 돌아보신 주
님,

저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 시간, 제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충분함을 믿습니
다.

내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이

주님의 능력 앞에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병은 이미 떠나갔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다!
나의 삶은 이제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주님, 제 손이 믿음으로 당신을 붙잡게 하소서.
당신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돌아보시고
저의 가장 낮은 손길을 귀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

모든 병과 악함을 고치시는 예수님



”[마 9:35]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
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예수님은 단지 한 도시의 한 병자만 고치
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은 헬라어
<노소스>와 <마락시아>로,
질병 자체뿐 아니라,
병으로 인해 지친 심령,
육체의 쇠약,

삶의 무너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단지 영혼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육체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감정을 일으키며,
의지할 힘조차 없던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는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택배일을 하시던 전광호
집사님은

허리 디스크로 인해 한동안 병원과 한방병
원을 전전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누워 있던
어느 주일 아침,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우연히 들었
습니다.

“모든 성과 촌을 다니시며… 모든 병과 모
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는 중얼거리듯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살고 있는 이곳도 ‘성’입니다.

이곳도 당신이 지나가시던 그 땅처럼 치유
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부터 통증이 줄기 시작했고,
이틀 만에 허리를 펴고 다시 걷기 시작했
습니다.

이후 그는 간증합니다.

“말씀이 지나가면 병이 떠납니다.

예수님이 내 도시, 내 집, 내 병상에 찾아오
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도시와 시골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그 자리,

가장 무너진 약한 부분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던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 치유의 역사가 지금도 멈추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병들었을 때 찾아오셨고
제 육신이 약해졌을 때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의 상한 감정,
지친 몸,
깨진 일상 가운데 오셔서 회복을 명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병은 떠나갔노라!
나의 모든 약함은 회복되었노라!
나의 삶은 주님이 만지신 치유의 자리로
변했노라!

예수님,
이 시간 저의 성, 저의 집, 저의 삶에 찾아
와 주옵소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악한 것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임하자 병이 떠나갔고,
예수님이 오시니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믿
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

제자에게 치유의 권능을 주신 예수님



“[마 10:1]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병든 자들을 직접 고치셨을 뿐 아니라,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위임하셨다. 그분은 단순히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기도해 주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엑수시아>로, 단순한 능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하늘의 권위,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한을 뜻한다. 예수님은 이 권한을 열두 제자에게 부여하셨고, 지금도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다.

이러한 치유의 권능은 특별한 목회자나 사역자만의 몫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 곧 복음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 권능을 통해 질병과 악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은 단지 기적을 기대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순종하는 능동적인 삶의 방식이다.

수원에 사는 한상진 형제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코로나19 후유증을 겪고 있었다. 후각을 잃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그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읽던 중 가슴 깊이 말씀의 의미가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면, 자신도 그분의 제자이기에 이 권능이 자신에게도 허락되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

도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몸에 명령하며 모든 피로가 떠나가고 후각이 회복될 것을 선포했다. 그리고 3일이 지나,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그는 진하게 풍기는 커피 향기를 느끼며 멈춰 섰다. 그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증거였고, 그 순간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했다.

이후로 그는 말한다. 권능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믿음과 순종 위에 역사한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체험했다고. 그는 지금도 자신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치유의 통로로 부르고 계신다. 예수님의 제자 된 자들은 단지 은혜를 받는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질병과 악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병든 자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질병을
향해 명령하라고. 그리고 그 명령이 믿음
과 순종 가운데 행해질 때, 하나님은 그곳
에 역사하신다.

우리 안에도 <엑수시아>, 하늘의 권능이
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담대히 살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삶이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주셨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오늘 저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수 있는 제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의 몸 안에 있는 질병에게
도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하게 하옵소서.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권능을 주셨노라.

나는 더 이상 질병의 종이 아니요,

주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제자라!

하나님,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제게 실제로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
는

치유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 10: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단순한 행위나 역할 수행에 그치지 않았다. “병든 자를 고치라”, “죽은 자를 살리라”,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씀은 어떤 종교적 행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곧,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에 그대로 흘려보내라는 사명이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 회복과 능력이 결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

을 선포하는 선언이었다. 이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졌기에, 받은 자 또한 조건 없이 나누어야 한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병든 자", "죽은 자", "문둥이", "귀신 들린 자"는 모두 당시 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고립된 이들이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제도 밖으로 밀려났으며, 공동체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던 이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명령을 주신다. 치유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자유케 하라는 명령은,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도 위임하신 것과 같았다.

경기도 군포에 사는 이윤미 자매는 오랜 시간 불면증과 만성 위염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 있었다.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어도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고, 밤마다 이어지는 뒤척임과 속 쓰림은 일상을 점점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녀는 마음 깊이 감동을 받았다.

“주님, 제가 그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 잘 알지 못하던 직장 동료 한 사람이 극심한 두통으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윤미 자매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예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손을 얹고 짧게 기도했다. 길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단순한 기도였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동료는 기도가

끝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두통이 사라졌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이윤미 자매는 확신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 주신 것임을. 자신이 받은 위로와 회복, 하나님의 만지심은 다른 누군가에게도 흘러가야 한다는 사명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그 사랑과 능력을 거리낌 없이 나누어야 한다. 그것이 복음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며,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본질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손을 얹을 때, 하늘의 기쁨부으심은 그 순간을 통해 더 크게 흘러가게 된다. 그리

고 그 기름부음은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뿐 아니라, 이 땅의 어두운 영역까
지도 밝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

오늘 우리도 그 명령 앞에 응답할 수 있어
야 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
아가야 한다. 그때 우리는 단순한 신앙인
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운반하는 자
로 세상 속에 서게 될 것이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께 거저 받았습니다.
치유도, 구원도, 회복도,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도 거저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던 믿음을 밖으로 꺼내겠습니

다.

병든 자를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자를 보면 손을 얹겠습니다.

절망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치유와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은혜로 주셨으니,

저도 은혜로 흘려보내겠습니다.

이 시간 제 안의 질병과 고통도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거저 치유받았노라!

나는 이제 거저 나누는 자가 되었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노
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눌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

안식일에도 회복을 명하시는 예수님



“[마 12:11-13] 예수께서 가라사
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셨다. 당시 유
대사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고, 심지어 병든 사람조차도 안식일에
는 도와서는 안 된다는 율법적 해석에 얽
매어 있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우선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뒤 흔들셨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하시며, 율법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마음-즉,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능력의 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종교적 형식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본심이 모든 사역의 중심이었다.

마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은, 오랜 시간 자신의 불완전함을 감추며 살아왔을 가능성이 크다. 종교 지도자들의 차가운 시선과 사람들의 냉소는 그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을 것이다. 아마 그는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자신의 존재를 늘 숨긴 채 살아왔을지 모른

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손을 내밀라.”

그 명령은 단순한 행동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부르심이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감추고 싶은 상처를 드러내야 하는 용기였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그의 손은 회복되었다. 성경은 그 상태를 ‘성하였다고’ 표현하는데, 원어로는 <홀로스>, 즉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단지 기능의 회복이 아닌, 존재 자체가 온전하게 되는 사건이었다. 그 치유는 그의 몸뿐 아니라, 마음과 자존감, 삶 전체에 일어난 회복이었다.

이 회복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 종로에 사는 박주연 집사님은 출산 후 신경 손상으로 인해 무려 10년 동안 손가락을 펴지 못한 채 살아왔다. 병원 치료도 반복되었고, 시간은 흐르면서

기대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러나 어느 날, 예배 중에 마태복음 12장을 묵상하던 그녀는 말씀 앞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고백했다.
“주님, 저도 손을 내밉니다. 이 마른 손을 믿음으로 펴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잡아당기시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강력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눈을 뜨고 손을 들어 올려보았을 때, 굳어 있던 오른손이 온전히 펴져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찬송을 드렸고, 이후 지금까지도 그 치유를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의 치유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것은 단지 질병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존재 전체를

다시 일으키는 은혜이다.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을 때,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 앞에, 온전한 회복을 선물하신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른 손, 마른 마음, 마른 삶을 보고 계신다. 감추지 말고, 믿음으로 내밀 때, 그 손 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이다. 존재의 온전함을 다시 허락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인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느라
제 병든 곳을 감추고 살아온 것을 용서하
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예, 주님.

이제는 믿음으로 손을 내밉니다.

상처 입은 마음도, 굳어버린 몸도,
가리고 숨겨둔 고통도 주님 앞에 내어 놓
습니다.

주님,

제 손을 회복시켜 주시듯,

제 삶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기능의 회복을 넘어서 존재의 회복으로 나
아가게 하소서.

모든 절망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하심이 저의 삶 전반에 선포되
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회복되었노라!
내 마른 곳은 살아났노라!
안식일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치유하고 계시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 12:15] 예수께서 아시고 거
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좃
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예수님께서는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
신을 따르는 무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병든 자들이 어디를 따라오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회복과 생명이 흘렀
고, 사람들의 절박한 몸부림 속에도 예수
님은 늘 응답하셨다.

마태복음 12장 15절은 이 사실을 간결하
고 단호하게 전한다.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선택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셨고,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아니라는 기준도 없으셨다. 그분이 고치신 병에는 예외가 없었고, 그분께 나아오는 자에게는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의학적 처치를 넘어서신다. 그분이 고치셨다는 것은 단지 증상을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까지 만지시고, 몸과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회복시키셨다는 뜻이다. 당시 사람들이 앓았던 병들은 피부병, 마비, 정신적인 고통, 귀신들림 같은 것들이었지만, 그것들은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병은 사회적 소외와 정서적 고립, 영적인 억압까지 수반하는 깊은 아픔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그러한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고통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이 회복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선화 권사 역시

그런 치유를 경험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녀는 6년 동안 청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로 지내야 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신체의 문제를 넘어, 사람들과의 소통 단절을 의미했고,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는 영적인 침묵 가운데 그녀는 외로이 지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권사는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이 말씀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혔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을 따르는 무리 중 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제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단순히 귀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깊은 갈망에서 나온 믿음의 부르짖음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그녀는 예배 중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 너

무 놀라워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서, 보청기 없이도 사람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알아듣게 되었다. 기적 같은 회복이었다. 김권사는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귀를 여셨을 뿐 아니라, 다시 믿음의 세계로 이끄셨다고. 이제 그녀는 이전보다 더 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예수님의 치유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다. 하나님은 오늘도 병든 자를 찾으시고, 고통당하는 자 곁에 오신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그 은혜는 반드시 임한다. 병이 아무리 깊고 오래되었어도,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외면당하지 않는다. 그 치유는 단지 몸을 회복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마음과 관계, 믿음까지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역사이다.

오늘도 주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도, 동일하게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도 고통을 안고 하나님을 따릅니
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듯이
저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 몸과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질병뿐 아니라
제 내면 깊은 곳의 고통과 상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져 주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셨다”는 말씀

처럼

저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도

예외 없이 고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
합니다.

나는 치유되었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었노라!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친히 고치셨노라!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리 중 하나였던 저를 찾아오셔서

회복의 손길을 내미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침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
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

웃가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얻는 은혜



“[마 14:35] 그 곳 사람들이 예수
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
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마 14:36] 다만 예수의 옷가에
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
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
으니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갈릴리 인근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
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
치지 않으려고 전속력으로 움직였다. 한
사람의 병든 몸, 한 가정의 고통스러운 상
황을 떠올리며 그들은 이웃과 친척, 친구
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다. 희망이
거의 사라진 시대,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
으로 인해 다시 소망이 살아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믿었다.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수 있다”고

그래서 모든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들의 상태는 각기 달랐지만, 마음만큼은 하나였다.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접촉으로도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안고 있었다. 성경은 그 장면을 단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요약한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손을 댄다’는 행위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향해 손을 내미는 용기였고, 자신의 절박한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이었다. 그 손끝에는 간절함이 있었고, 절망을 뚫고 나오는 신뢰가 있었다.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러한 믿음은 지금도 사람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 부산에 사는 고현숙 집사님은 수년 동안 만성 두통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아 왔다. 머리를 짓누르는 통증과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반복되면서 삶의 활력은 점점 사라져 갔다. 약을 먹고 병원을 찾아도 뚜렷한 호전은 없었고, 그녀는 어느새 지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태복음에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다. 그 말씀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댍니다. 저를 고쳐 주십시오.”

그 기도는 말보다 깊은 믿음의 손길이었다. 그리고 한 새벽, 그녀는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머리에서 굴러 떨어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머리가 맑아지고, 몸 전체가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그

녀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두통도 사라졌다. 그녀는 고백했다. “하나님은 제 손끝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지금도 여전히 흘러 넘치고 있으며, 어느 시대보다도 간절한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나를 만져라.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옷가를 향해 손을 뻗는 것이다.

믿음은 내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손끝에 하나님의 생명이 닿을 때, 치유는 시작된다.

오늘 당신도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주저 없이 말씀하실 것이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치유는 오늘 당신의 삶에도 임할 수 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은
수많은 병든 자들처럼
오늘 저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
밉니다.

나의 병든 몸을 감추지 않습니다.
나의 지친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옷가에서 흘러나오는 치유의 능
력이
제게 닿게 하소서.

하나님,

다만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을 입게 하신
그 자비와 은혜가
지금 이 몸에, 이 마음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나음을 입었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고치셨노라!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놀림과 고통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
너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고치시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음을 입은 자로서,
치유의 증거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7

꾸짚으심으로 떠나는 질병과 어둠



“[마 17: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
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마 17:18] 이에 예수께서 꾸짖
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으니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애써도 고치지 못한 한
아이가 있었다. 그는 단순히 육체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온몸이 뒤틀리
고, 불 속과 물 속으로 스스로를 던지는 이
아이의 상태는 분명히 사람의 힘으로는 감
당할 수 없는 깊은 영적 억압과 질병에 사
로잡힌 상황이었다. 가족과 제자들, 그 누
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 짧은 말씀은 단순한 장소 이동의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에로의 초청이었다. 예수님은 아이 안에 있던 악한 영을 꾸짖으셨고,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그 꾸짖음 앞에서 귀신은 떠나갔고, 아이는 “그 때부터” 나았다고.

‘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바로 그 순간, 치유는 시작되었고 회복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인간의 노력이 멈추고, 하나님의 권위가 선포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우리의 삶에도 인간의 말과 노력으로는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아무리 기도해

도 응답받지 못했던 질병,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 세대를 따라 내려오는 어둠의 사슬 같은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포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 마디, 예수님의 단호한 꾸짖음 앞에서는 어떤 귀신도, 어떤 질병도, 어떤 절망도 머물 수 없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정은 집사님은 십여 년 동안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하며 살아왔다. 마음의 어둠은 깊어졌고, 약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마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그 말씀은 단순한 본문이 아니었다. 김 집사님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드는 음성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간절히 외쳤다. “하나님, 지금 저의 어둠도 꾸짖어 주십시

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약 없이 잠들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안도감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자신이 전혀 다른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직감했다. 그 후로도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녀는 고백한다.

“예수님의 꾸짖음은 제 어둠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하다. 우리 자신이 그 아이처럼 어떤 놀림이나 고통 속에 있을 때, 혹은 우리 가족, 이웃, 자녀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 앞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분 앞에 나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

숨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치유는 시작된다. 회복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던 일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어둠을, 우리의 억눌림을, 우리의 질병을 그분께로 가져가야 한다.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 앞에서, 모든 어둠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예수님 앞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합니다.

제가 안고 있는 모든 질병, 모든 눌림,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통까지

예수님의 권세 아래로 데려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꾸짖어 주소서.
나의 몸을 괴롭히는 질병을 꾸짖어 주소
서.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을 꾸짖어 주
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불신앙을 꾸짖
어 주시고
그때부터 나음을 입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게 붙어 있던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 몸을 얹매던 질병은 지금 이 시간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나는 자유함을 입었
노래!
지금 이 순간부터, 나도 회복되었노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미 고치시기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

땅에서 묶고, 하늘에서 푸는 치유의 권세



“[마 18: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셨다. 그분이 주신 권세는 단순히 교리를 지키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의 문제를 돌파하고, 고통받는 삶을 회복으로 이끄는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권한이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형식적인 종교 언어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약속이었다. 병과 고통, 억압과 절망을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그 근원이 묶이고 멈추게 된다. 또한 회복과 평안을 이 땅에서 풀어놓으면, 하늘의 회복이 그 삶에 풀려나기 시작한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이다는 자매는 오랜 시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병원을 다녀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약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통증은 단지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무겁게 짓눌렀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말씀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깊이 붙들게 되었다.

그녀는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로 결단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통을 땅에서 묶

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이 땅에서 풀어놓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권세 앞에 올려드렸고, 동시에 그분의 회복이 현실에 나타나기를 믿고 선포했다.

그 기도를 시작한 지 삼일째 되던 날,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갑작스러운 통증의 소멸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평안이 밀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고백했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풀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권세는 추상적인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고통을 끊으며, 회복을 불러오는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신다. “너는 무엇을 묶을 것이냐? 너는 무엇을 풀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단지 기도 제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세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느냐는 하나님의 도전이기도 하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믿음은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는 통로다. 믿음으로 병을 묶고, 믿음으로 회복을 풀 때, 하늘은 반응하고 움직인다. 예수님이 주신 권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으며, 그 권세를 붙잡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이 땅에 흘러가고 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

습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사
오니
이 시간 나의 믿음으로 선언하오니 응답하
여 주옵소서.

지금 내 삶에 묶여 있는 모든 질병의 권세
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통증을 묶습니다. 염증을 묶습니다. 암세포
를 묶습니다.

우울을 묶습니다. 공황을 묶습니다. 고통을
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풀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을 이 시간 선포하며
풀어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땅에서 내가 묶은 이 질병은 하늘에서도
묶일지어다!

내가 풀어놓은 하나님의 치유는 지금 이
땅에 임할지어다!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지금 이 순간부
터 자유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회복을 입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먼저 응답하시고,

이 땅에서 실제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
니다.

내가 믿음으로 묶고, 믿음으로 푸는 그 순
간,

하늘이 함께 움직이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

합심하여 기도할 때 임하는 치유의 능력



“[마 18: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셨고, 신앙의 여정 또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 특히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담겨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

지켜서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단지 기도하는 사람의 수를 강조한 것이 아니다. 마음과 뜻과 믿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그 영적 연합 안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약속이다.

개인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나 함께 울고 함께 믿으며 함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강력한 요청이 된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혹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박은영 자매는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뒤 회복이 더뎠다. 수술 부위의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우울감과 불면증이 함께 찾아왔

다. 하루하루가 버거웠고, 마음도 지쳐갔다. 그런 그녀에게 한 집사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9시에 전화로 연결해 단 5분이라도 함께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 은영 자매의 몸을 고쳐 주세요.”
짧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는 매일같이 이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간절하고 깊어졌다. 그렇게 30일째 되던 날 밤, 은영 자매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늘 따라다니던 통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기도하던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합심의 기도는 혼자의 믿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불러온다. 그 기도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비로소 하늘과도 연결되는 통로가 된다. 치유는 물론 개인에

게 임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드러지는 기도를 통해 더욱 풍성하고 빠르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신다.
너는 누구와 함께 기도하고 있느냐고.
너의 아픔을 누군가와 나누고 있느냐고.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답해야 한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은 한 사람을 넘어, 공동체 전체로 흘러간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치유가 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드립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믿음의 마음을 합하여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또 다른 믿음의 형제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치유를 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합심기도로 인하여
모든 병은 치유될지어대!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대!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대!
하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지어대!

하나님 아버지,
치유를 간구하는 모든 마음들이

혼자가 아닌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회복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찬
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

우리를 고치시는 자비의 손길



“[마 19:2] 큰 무리가 좇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혹은 단지 병이 나아보길 바라는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무리 가운데서
주님은 멈추셨고,
그곳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단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무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

니다.

그 “무리” 속에는
믿음이 깊은 사람도 있었고,
반신반의하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병든 자도 있었고,
절망에 찬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무리” 중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
갈 수 있습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묻혀 있어도
예수님은 당신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 모두를 향해
그분은 여전히 손을 내미십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김주은 집사는
교회 기도회 때마다 뒤편에서 조용히 눈물

만 흘렸습니다.

모든 간절한 말조차 잃어버린 채

그저 '무리 가운데'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회 마지막 날,

목사님의 안수기도가 끝나자

십여 년 동안 손에 느꼈던 떨림과 통증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녀의 자리에 오셨고,

그녀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 없이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그분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치유는 여전히, 그 무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 자리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 말씀을
믿습니다.

저도 오늘 그 무리 중 하나로 주님께 나아
갑니다.

비록 제 기도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말 한마디 꺼낼 힘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자리에 오셔서
나의 질병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무리 속에서 눈물로 주님을 찾는 자들,
속으로만 간구하는 자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자비는 오늘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병든 이들에게 손을 내미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소서.
오래된 통증이 풀어지게 하소서.

불안과 우울, 고통과 좌절이 떠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있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병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육체는 회복되고,
내 마음은 새롭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해 다가오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를 고치시는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믿음의 역사



“[막 2:3-5, 11-12]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내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한 집,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만큼 붐비는 그곳에서 중풍병자의 친구 네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단념

하지 않았고, 대신 한 가지 대담한 선택을 했다. 지붕을 뜯고 그 위에서 환자를 줄로 달아 예수님 앞에 내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 주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의 병만 바라보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를 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그 순간, 그 환자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의 상처와 죄책감, 놀림이 풀려나갔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깊은 곳에 닿았고, 동시에 몸의 치유가 함께 시작되었다.

이어 예수님은 명확하고도 강력한 명령을 내리셨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환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즉시 일어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치유를 기록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 생명의 통로가 되는지를 보여 주는 말씀이다. 때로 우리는 너무 약해져서 스스로 걸어갈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누군가의 믿음이,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이다.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기도가 그를 예수님께로 내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조연정 권사는 그런 믿음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다. 그녀의 남편은 갑작스런 중풍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의료진도 회복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조권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40일 동안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며 기도했다.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고,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날들 속에서도

그녀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기도 41일째 되는 날, 남편의 팔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근육의 반응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다. 이후 그의 상태는 점차 나아졌고, 결국 그는 정상적으로 걷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그리고 조 권사는 그 시기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네 믿음을 보았다. 내가 고쳤다.”

믿음은 지붕을 뜯는 용기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장애물 앞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데려가는 책임이다.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친구의 손을 붙잡고, 그를 주님 앞에 내리는 사랑이다.

그리고 믿음은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죄 사함과 치유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길이다.

오늘 당신이 연약하여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힘이 없다면, 누군가의 기도가 당신을 위해 올려지고 있을지 모른다.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이가 아픔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믿음이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순간이다.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의 회복은 실제로 임한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데려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그 장면을 묵상합니다.

저도 지금 믿음의 지봉을 뜯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상황의 벽도, 현실의 무
게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의 병든 몸, 병든 가족, 병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립니다.

주님, 저를 보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명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 즉시 일어날 줄 믿습
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과
육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일어날지어다!
나는 회복될지어다!

나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죄 사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



“[막 1:30-31]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 당시 사람들은 즉시 예수님께 그녀의 상태를 간절히 아뢰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다. 망설임도, 조건도 없이 그 병든 여인을 향해 다가갔고,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성경은 그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단순히 치유가 일어났다는 말로 끝내지 않는다. 예수님이 직접 손을 잡으셨고, 그 손길을 통해 열병이 물러났다고 증언한다. 그 손길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었고, 고통받는 자를 향한 세심한 관심과 깊은 사랑, 그리고 실제적인 회복의 능력이 함께 있었다.

그 여인은 치유된 직후 곧 일어나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온전히 회복된 모습이었다. 기력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살아갈 이유와 섬길 힘까지 함께 되찾은 것이다. 그 모습은 회복의 완전한 증거였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일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손을 내밀고 계신다. 치유는 단지 병이 낫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삶의 자리에
일어서는 것이며, 마음과 영혼까지 새 힘을
얻는 회복의 역사이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정선화 자매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신경계 이상으로 인해 한 달이 넘도록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다. 몸의 이상뿐 아니라 극심한 무기력과 깊은 침묵 속에 빠져 기도조차 나오지 않던 어느 날, 한 자매가 병문안을 왔다. 그녀는 조용히 말해주었다. “예수님이 선화 자매 손을 꼭 잡고 계신대요.”

그 한마디는 복음 그 자체였다. 그 말이 마음에 들어온 순간, 정선화 자매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스스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오히려 병상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그 손을 잡았던 순간이 회복의 시작이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일어나라.” 그 말씀은 과거의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의 부르심이다. 주님은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신다. 우리의 열병, 우리의 마비, 우리의 무기력한 시간을 향해. 그리고 그 손길 하나가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늘, 주님의 손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 그 손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당신의 열병은 떠나가고, 주님은 당신을 다시 삶의 자리로 세우실 것이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의 장모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키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도 지금 병상에 누운 심정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도 지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은 이미 제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미 제 곁에 오셔서
조용히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 손을 꼭 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열병처럼 저를 괴롭히는 통증과 고통을 떠나
가게 하소서.
마음속 무력함도 사라지게 하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일어날지어대!
나의 열병은 떠나갈지어대!

나를 괴롭히던 통증과 증상들은 지금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나는
다시 일어나 주님을 섬길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가와 손을 잡아 주시는 사랑에 감사합니
다.

이제 저는 다시 살아난 자로 주님을 섬기
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

각색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막 1:34]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몇 가지 질병만 고치신 분이 아니었다. 성경은 그분께 나아온 수많은 병자들을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병의 종류나 심각도에 관계 없이 예수님께서 모두 고치셨다고 증언한다. 불치병이든, 만성질환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예수님의 손길 아래 예외는 없었다. 인간이 나누는 병의 경중은 예수님 앞에서 큰 의미를 갖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질병 위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다.

예수님은 또한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는 그분이 단지 육체의 회복만을 위한 치유자가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참된 권세자이심을 보여 준다. 마가는 기록하기를,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보았지만, 예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고 말한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드러낸다. 그 어떤 악한 영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입을 열 수 없고, 머무를 수도 없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병들도 예외가 아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 질환, 몸이 아닌 마음에 깊이 새겨진 오래된 상처와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둠과 눌림들 역시 예수님 앞에서는 단지 '각색 병'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지영 집사님은 10년

넘게 난치성 피부질환으로 고통을 겪어 왔다. 밤마다 전신에 번지는 가려움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했고, 육체의 고통은 점차 마음의 피폐함으로 이어졌다. 기도조차 힘들었던 그녀는 어느 날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녀에게 믿음의 선언이 되었다.

“예수님, 저를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질병도 당신께는 ‘각색 병’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그날 이후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한 달 후, 기도원 집회에 참석한 박 집사님은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순간 온몸의 염증이 가라

았기 시작했다. 이후 잠도 회복되었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오늘 그녀는 담대히 고백한다.

“저를 괴롭히던 병은 예수님의 손에 닿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분께 나아오는 자는 어떤 병도, 어떤 눌림도 예외 없이 회복될 수 있다.

주님의 손에 닿는 순간, 병은 물러가고, 어둠은 떠나며, 마음은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분은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신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
음을 믿습니다.

저의 질병도 주님 앞에 예외가 아닙니다.
이 고통이 아무리 오래 되었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저 “각색 병”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 주옵소서.
저를 눌러왔던 통증과 질병,
제 삶을 짓누르던 귀신의 억압과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여 주옵
소서.

예수님의 권세 아래
모든 병과 모든 영적 눌림은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모든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나는 예수의 손에 의해 치유되었노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었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병과 눌림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저를 위해 친히 고치시는 분으로 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온전한 자로 주님의 이름을 높
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54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당신이 깨끗해지기를



“[막 1:40-42]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문둥병은 단순히 몸이 아픈 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 이상으로 깊은 사회적, 정서적 상처를 남기는 병이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단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하고, 심지어 하나

님의 성전에도 들어올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보다 더 깊은 아픔은 바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철저히 고립되는 것이었다.

그런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고백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그의 말 속에는 분명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예수님이 능히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과연 예수님이 자신 같은 사람을 원하실까 하는 두려움도 함께 있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지만, 자신의 더러움과 수치스러움이 그 능력을 가로막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이 표현은 단순한 연

민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강한 공감, 함께 아파하고 품으려는 뜨거운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 병든 몸에게 손을 대셨다.

당시 누구도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문둥병이 사라졌다. 그의 몸은 즉시 정결해졌고, 병의 흔적은 더 이상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치유는 단지 육체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사회 속으로, 성전 안으로, 사람들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었다. 그의 몸만이 아니라, 정체성과 인간관계, 믿음까지도 온전히 회복된 것이다.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수치로, 죄책감으로, 또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 혼자 외롭게 누워 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고립되어 있고, 누구에게도 손 내밀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단지 능력만 가지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자유해지기를, 치유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어떤 질병에 있든, 어떤 고통 속에 있든, 혹은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수치와 외로움 속에 있든, 예수님은 그 자리

에 오셔서 손을 내미신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하신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은 곧 회복의 시작이며, 새 삶의 출발이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 문둥병자처럼 나아옵니다.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외면당한 내 질병과
아픔을
이제는 주님 앞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주님, 원하시죠?
저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저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제 마음의 문둥병도,

제 영혼의 어두움도,
제 육체의 통증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말끔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깨끗해졌노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지시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깨끗함을 입었노라!

사람이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셨습니다.
사람이 외면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안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게 손 내미시고, 제 질병을 만져주시고,
깨끗함을 명령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

주님은 굳은 손마저 펴게 하십니다



“[막 3:3]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
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
라 하시고

[막 3:4]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
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
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
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
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막 3:5]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
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육체 치유의 사건을 넘
어, 주님의 권위와 자비, 그리고 우리 내면
의 상태를 정면으로 드러냅니다. “손 마른

자”는 헬라어로 <퀼레로스>이며, 이는 물리적으로 마비되거나 마른 손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마른 손은 곧 유대 사회 안에서 ‘무능함’과 ‘수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회당 안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한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헬라어 <메소스>는 ‘가운데, 중심’을 뜻하는데, 이는 그를 회복의 중심, 은혜의 초점으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장애인을 구석으로 밀어 넣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한복판으로 초청하십니다. 당신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곳, 회복이 일어날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는 단지 안식일 규례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예수님의 마음에는 근심(<술루페오>)과 노함(<

오르게)이 함께 자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단지 병을 고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은 마음을 녹이는 데 있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는 한 번도 자기 의지로 손을 펼 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 앞에서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순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대전에서 살아가는 김하은 집사님은 8년 동안 류마티스로 인해 손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억지로 예배에 앉아 눈물만 흘릴 뿐, 찬양도 박수도 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막 3장의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 매일 이 말씀을 손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펼 수 없는 손이지만, 믿음으로 내밉니다.”

3개월째 되는 날, 그는 예배 중에 찬양 인도자의 말에 따라 믿음으로 양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뻗뻗하던 손가락이 풀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손보다 앞서 있었어요.
순종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손 마른 사람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굳은 마음, 굳은 삶, 굳어버린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께서 회당의 중심으로 그를 부르셨
듯이,
저를 은혜의 중심으로 불러주시고
굳어진 저의 삶의 부위를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잠잠한 율법주의자들처럼

저의 마음이 굳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쪽에 서 계
심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주님의 음성은 능력이며,
주님의 손길은 치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질병 위에 말씀하여 주
옵소서.
저의 마른 손, 마른 믿음, 마른 삶을 회복시
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6

웃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막 5: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의 옷에 손을 대니

[막 5: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
일러라

[막 5:29]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부정한 자”라는 낙인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혈루병에 걸린 자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고, 회당도, 가족도, 삶도 멀어진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철저히 고립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유, 공훈, 능력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믿음이 싹텄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한 기대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소조> - '구원을 얻는다, 온전하게 된다'라는 이 단어는, 단지 병이 나음을 넘어서 삶 전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녀는 예수님의 겹옷 <히마티온>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한 믿음이자, 예수님께 흐르는 하나님의 권능을 향한 절대적 신뢰였습니다.

여인은 무리를 뚫고, 모든 두려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 손을 댍니다.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습니다. 마르다(헬라어 <짜노>) - 말 그대로

‘근원이 말라버리는’ 기적이, 그녀의 몸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적은 오늘도 가능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오랜 질병, 멈추지 않는 출혈처럼 내면에서 끊임없이 새어나가는 아픔과 상처... 그것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야 멈춰섭니다. 그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그분의 옷자락에는 권능이 흐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김소희 집사님은 17년간 소화계통의 만성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병원도 약도 소용이 없었고, 가정마저 무너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예배 말씀 중 막 5장의 본문을 듣고 그녀는 주저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날이다!” 그녀는 예배당 가장 앞자리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옷자락만이라도... 제가 손대겠습

니다.”

그날 이후, 소희 집사님의 만성 증상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던 혈루증 여
인처럼,
저도 내 속의 아픔을 숨기며 살아온 죄인
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무너진 채,
주님의 옷자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의 뒤에서 손을 댔을 때,
그녀의 믿음이 병보다 더 컸고,
주님의 은혜가 율법보다 더 깊었음을 믿습
니다.
저도 그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흘러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소서.

멈추지 않는 통증, 끊어지지 않는 수치,

말 못 할 상처들을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의 능력으로 멈춰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나의 혈루는 말랐습니다.

내 질병은 그 즉시 사라졌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나를 온전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

믿음이 치유를 일으킵니다



“[막 5: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
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
강할지어다”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병든 여인을 보시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구원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소조>입니다. 이는 단지 육체적 치유만이 아닌, 전인적 회복과 구원, 즉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회복을 포함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선언을 넘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뜻합니다.

그 여인은 혈루증으로 12년을 고통받았습니다.

니다. 부정하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소외 당하고, 재산도 모두 잃고, 의사들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절망 속에서 단 하나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지만,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친히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현정 자매는 몇 년 전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전이 단계라며 희망이 거의 없다고 했지만, 그녀는 매일 성경을 펴고 이 말씀을 붙들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듯 기도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암 효과가 거의 기대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3개월 만에 종양이 작아지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의사는 포기했지만, 주님은 나를 딸이라

부르셨고, 나의 믿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단순히 “병이 나았다” 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의 개념입니다. 몸만 낫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평안하며,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과거의 누군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말씀 앞에 나아오는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딸아, 아들이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너는 건강할지어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여인의 믿음을
오늘 제 마음에 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불가능하다 하고, 의사
들도 손을 놓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얼굴을 뵈 자격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의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제 안에 오랫동안 눌러 있었던 모든 질병
은 이제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함, 고통, 눌림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저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의 회복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질서까지도 회복되게 하소서.

저를 새롭게 하소서.

딸이라, 아들이라 불러주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

기름 부어 치유하시는 하나님



“[막 6:12]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
하라 전파하고
[막 6:13]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
더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단지 말씀만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권
세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라”
는 복음을 전하며, 동시에 많은 병든 자들
에게 기름을 바르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
당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약재로서의
기름 사용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
름부음(히브리어 <메쉬하>)을 상징합니
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

능, 자비와 회복의 표식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능력을 전달자(distributor)로서 행사했습니다. 고치는 이는 사람이 아니요, 기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름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대한민국 광주에 사는 전병숙 권사님은 오랫동안 고관절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 거의 걷지 못하셨습니다. 2019년 어느 날, 금요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름을 바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날 권사님은 믿음으로 나가 기도받았고, 손에 올리브유 한 방울을 바르며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이 기름이 예수님의 손길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통증이 사라지고,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뒤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고관절 주변 조직이 회복되고 있다고 말하며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과 함께하시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과 기름부음을 부어 주십니다. 그 기름은 단지 올리브유가 아니라, 성령의 도유(塗油)이며, 회복의 언약이자,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병든 자들
에게 기름을 바르고 고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에게도 동일한 기름부으심
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저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제 안의 두려움과 불신을 회개합니다.
저의 삶 속에 숨어 있던 불순종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제 머리에, 제 마음에, 제 몸에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이 닿는 모든 곳마다 성령의 능력
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의 억압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든 세포는 새살로 회복될지어다!
기름부음이 임하매 나는 온전히 나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회개케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기름부어 다시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

“에바다!” 열리라 -
달한 인생을 여시는 예수님



“[막 7:32] 사람들이 귀먹고 어
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막 7:33]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
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
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아 그
의 혀에 손을 대시며
[막 7:34]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
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
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막 7:35]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
더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에바다!” - 이 단어는 아람어로 “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

라, 닫힌 인생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귀가 닫히고 말이 막힌 이 사람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의 문제를 넘어, 사람들과의 소통이 단절된 외로움 속에 갇혀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무리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주님의 섬세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 표현은 요즘 우리가 보기엔 낯설고 당황스럽지만, 당시 문화권에서는 침을 치유의 상징으로 여겼고, 직접 만진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그 탄식은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류 전체를 향한 깊은 공감과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바다!” 말씀하시니, 닫혀 있던 귀가 열리고, 말하지 못하던 혀가 풀렸습니다.

듣지 못하던 인생이 들을 수 있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영혼이 찬양하게 된 순간입니다.

대구에 사는 박재희 집사님은 10년 넘게 이명과 청각장애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졌고, 교회 찬양소리조차 듣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가복음 7장의 ‘에바다’ 말씀을 붙잡고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귀를 열어 주소서. 제 마음의 귀도 열어 주소서.”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 ‘에바다’라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녀의 귀에서 갑자기 ‘딱’ 하는 소리가 들렸고,

수년간 울리던 이명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습

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따로 데리
시고 손을 대시며 “에바다!”라 외치셨듯이
저의 닫힌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듣지 못하는 영혼이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고, 진리를 외면했고, 사
람들의 위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음은 닫혀 있었고, 저의 혀는 상처
와 한숨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따로 불러내어 주옵소서.
무리 가운데 묻혀 있는 저를 친히 데려가
시고,

귀에 손을 대시며 혀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나의 귀는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나의 혀는 풀릴지어다! 찬송이 터질지어
다!

내 마음은 열릴지어다! 생명의 빛이 들어
올지어다!

하나님, 저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을 기억
합니다.

그 사랑의 눈물과 안타까움이 저를 향한
깊은 긍휼임을 믿습니다.

이제 제 삶이 닫힌 자리가 아니라 열리는
자리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0

두 번 안수하신 예수님 -
완전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막 8:23]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막 8:24]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다 나무 같은 것들의 걸어가는 것을 보나다 하거늘

[막 8:25]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막 8:26]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잡으셨다. 그

손길은 단순한 인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의 손은 길잡이였고, 희망이었고, 사랑 그 자체였다. 예수님은 그를 이끌어 사람들로 북적이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세상의 시선과 불신앙의 환경에서 떼어 놓고, 오직 주님과 단둘이 있는 자리로 부르신 것이다. 그것은 치유의 시작이자, 내면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었다.

주님은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다. 그러나 놀랍게도 즉시 완전한 시력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말한다.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터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었고, 그 준비가 아직 온전히 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회복 앞에서 실망하

지 않으셨다. 그분은 다시 한 번 안수하셨고, 그 결과 그의 눈은 밝아졌고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해 준다. 하나님의 치유는 반드시 즉각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기적보다도, 깊고 온전한 회복을 원하신다. 우리 안의 믿음이 자라나고, 신뢰가 깊어지며, 그분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는 과정 속에서 치유는 완성된다.

서울 마포에 사는 김다운 자매는 선천적인 시신경 이상으로 인해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채로 살아왔다. 오랜 시간 기도했고, 금식도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깊었고, 기도가 점점 줄어들었다. 낙심은 서서히 그녀의 믿음을 마르게 했다.

그러던 중 한 영성 수련회에서 그녀는 예

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신 본문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고,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한 번의 안수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제게도 두 번째 안수를 주옵소서.”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자신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가 지금 내게 임합니다.” 그 기도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고백이 되었고, 믿음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 정기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는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뜻밖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 완전한 회복은 아직 아니었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김다운 자매는 말한다. “처음보다는 나아졌어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회복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 역시 결국에는 온전한 시선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 때, 주님은 다시 안수하신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손길에서부터, 새로운 빛이 시작된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잡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듯이,
저의 손도 붙잡아 주시고 저를 불신과 절
망의 자리에서 끌어내 주옵소서.

저의 눈은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저의 믿음은 아직 흐릿하고, 영혼의 시야는 뿌영습니다.

하지만 주님, 한 번의 은혜로 부족할지라도 다시 한 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눈은 밝아질지어다. 나의 영혼의 시야는 회복될지어다.”

“내가 주목하여 보리라. 모든 두려움과 혼돈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내 삶을 비추게 될지어다.”

하나님, 저는 아직 온전한 회복의 중간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중단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에 내 삶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1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
바디매오의 외침처럼



”[막 10:46]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막 10:47]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막 10:48]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막 10:49]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막 10:50] 소경이 겹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막 10:51] 예수께서 일러 가라
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
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
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막 10: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
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바디매오의 이름은 “디매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정된 신분과 사회적 멸시는 이름 앞에 붙은 ‘소경’과 ‘거지’라는 단어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있었고, 지나가는 소문에만 의존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곧장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를 꾸짖으며 침묵을 강요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 외침은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고, 절박한 심령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 소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매오는 곧 겹옷을 버리고 예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벗어던진 겹옷은 그의 삶 전체-거지로서의 신분, 소외된 존재, 수치와 절망-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행위였습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주저 없이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다.”

이 짧은 말 안에 수많은 밤을 눈먼 채 흘린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조>이며, 치
유와 회복, 구원, 생명 전체의 회복을 뜻합
니다.

수원에 사는 박세진 집사는 심한 우울증으
로 5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아
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
고, 길가에 앉은 바디매오처럼 사람들 틈
에 있지만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가복음 10장을 읽다가 눈물이 쏟아
졌습니다.

“주님,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는 매일 이 말씀을 소리 내어 기도하며
외쳤고, 3개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약을 끊
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찬양단의 키보디스트로 섬기
며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
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디매오처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은 조용하라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
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서!”

주님, 제 외침을 들으소서.

주님, 제가 벗어나야 할 겉옷이 있습니다.

수치심, 절망, 자기연민, 부정적인 태도와

영적 나태함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겉옷을 벗고 주님께 달려가게 하소서.

주님, 저의 고백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 영의 눈을 열어 주소서.

제 마음의 어둠을 밝히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노라.

나의 육체는 회복되었고, 나의 영혼은 눈을 떴노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다시 일어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

의심하지 않고 말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막 11: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약속을 주셨다. 그분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특정한 사람이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들만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누구나 포함된 전폭적인 초청이었다. 제자들만을 위한 능력도, 목회자나 특별한 영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권세도 아니었다.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 약속에 응답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산은 단지 자연의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오랜 시간 고통을 주는 질병과도 같은 현실을 상징한다. 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커서 오히려 우리가 작아지는 듯한 존재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산을 향해 ‘말하라고 하신다.

믿음은 침묵이 아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에 이어 조건을 붙이신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마음속으로 바라는 정도가 아니다. 히브리어로 ‘믿다’를 뜻하는 <아만>은 “견고히 세우다, 확고히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믿음은 내가 마음으로 붙잡

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행위다.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일치될 때, 믿음은 실체가 된다.

이 믿음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 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이현우 형제는 오랜 시간 위장 질환으로 고통받았다. 그는 매 끼니마다 통증에 시달렸고, 식사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약물 치료도 받고 식습관도 조절했지만, 증상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단호하게 고백했다.

“이 위장의 고통이라는 산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울지어다!”

그리고 그는 하루 세 끼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했다.

“나는 이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

그 고백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불안정하던 소화 기능이 회복되었고, 배변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회복된 몸을 가지고 담대하게 고백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믿는 대로 말할 때, 산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

“너는 무엇을 향해 말하고 있느냐?”

산 앞에서 조용히 물려서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믿는 자는 말한다.

말하는 자는 움직인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말할 때, 그 믿음은 산을 옮긴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산이 무엇이든,

그것이 질병이든, 문제이든, 관계의 아픔이
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 산도 들려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산을 보
니다.
절망이라는 이름의 산, 고통이라는 이름의
산, 질병이라는 이름의 산...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산
을 향해 외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산은 들려 바다에 던져질지어대!
이 고통은 떠나갈지어대!
이 질병은 파쇄될지어대!

하나님, 저는 지금 믿습니다.
제가 선포한 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의 마음에서 모든 의심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히 세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병의 세력은 무너지고,
모든 고통은 소멸되며,
모든 삶의 장애물은 치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

받은 줄로 믿는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막 11:24] 그러므로 내가 너희
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
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
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의 본질을 아주 단호하
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무엇이든지 기
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은 단지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는 차원
을 넘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슴 깊
이 깨닫게 하는 선언이었다. 믿음의 관점
에서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지
않았어도 이미 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진 깊은 뜻은 ‘받은’
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다. 헬라어로 ‘받

다에 해당하는 <람바노>는 단순히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붙잡고, 취하며,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나는 이미 그것을 가졌습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주님은 기도가 끝난 그 자리에서, 이미 응답된 줄 알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이다. 응답이 눈앞에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일은 이미 하늘에서 완료된 사건인 것이다.

경북 구미에 사는 박선희 권사는 심한 심장 부정맥으로 인해 매일같이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루에 두 번씩 병원을 찾을 정도로 상태는 심각했고, 복용 중인 약도 큰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그녀의 일상엔 늘 두려움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기도 중에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말씀이 깊이 파고들었다. 그날부터 그녀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는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때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통증도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선포했다.

“나는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고백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증세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세 달이 지나,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놀라운 회복을 말해주었다. 심장 박동이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이다. 이 변화는 단지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선포한 믿음의 열매였다.

박선희 권사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낫고 나서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받은 줄로 믿을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고, 그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

기도하고 구했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받은 줄로 믿으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기적은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감사는 응답 이후가 아니라, 응답을 믿는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제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제 마음 깊은 고통까지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 구하오니
들으소서.

하나님,
저는 이미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 질병이 아직 몸에 있어도,
제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어도,
저는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저는 낫게 되었나이다.

제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의심을 파쇄하
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나님, 저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저에게 이루어졌음을 믿
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4

믿는 자에게 따르는 치유의 표적



“[막 16: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막 16:18]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있다. 그 표적은 단지 신비한 기적의 현상이나 감동적인 체험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임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징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 곧 평범한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선포하신 이 표적은 매우 구체적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새 방언으로 기도하는 능력, 뱀이나 독에 해를 입지 않는 초자연적인 보호,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나음을 입는 치유의 은혜까지. 이 모든 표적은 특별한 사역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축복이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그 손 자체에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치유의 권능을 흘려 보내신다. 그러므로 손을 얹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능력을 삶에 초청하는 믿음의 표현이다.

대전 유성에 사는 김현정 자매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안면마비를 겪게 되었다. 말도 잘하지 못하고, 표정도 만들 수 없게 되었으며,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두려움에 빠졌다. 병원에서는 회복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낙심 속에서도 교회로 나아갔다. 함께 기도하던 자리에서 한 자매가 믿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안면신경은 회복될지어다!”

그 순간 그녀는 얼굴에 따듯한 열기를 느꼈고, 다음 날 아침부터 입꼬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녀의 얼굴은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그녀는 지금도 이렇게 고백한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나를 고치

셨습니다.”

이 표적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기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다. 우리는 종종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이 목회자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그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면,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난다. 귀신은 떠나가고, 눌린 영혼은 방언으로 회복되고, 해로움 가운데서 보호 받으며, 병든 몸은 치유를 입는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제,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그 이름을 의지하라.

당신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도록 내밀라.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실제로 임할 것이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표적들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몸이 병들었습니다.

마음도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두 손을 들어 주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그칠지어다!

세포는 회복될지어다!

근육과 신경과 장기는 원상태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손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손을 얹었기에, 주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손을 얹어 기도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하소서.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자유함을 얻게 하
소서.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되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5

예수께 나오는 자마다
고침을 받은 치유의 능력



“[눅 6:18]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눅 6:19]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
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
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낮게 함이
러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은 단지 말
씀만 하신 분이 아니셨다. 그분은 능력이
흘러나오는 살아 있는 치료자이셨고, 지금
도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시다.

예수님께 몰려들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각
기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이는
병든 몸을 이끌고 나아왔고, 어떤 이는 눌
린 마음과 짓눌리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왔

으며, 또 어떤 이는 귀신에게 시달리며 영적으로 묶인 상태로 주님을 찾았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가진 가장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왔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상태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고통을 깊이 바라보시며 능력을 흘려보내 주셨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증언한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이 말씀은 단지 외적인 질병이 나왔다는 뜻을 넘어서, 영혼 깊은 곳에서 묶인 고통과 억압도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님은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의 능력은 누구

에게나 흘러갔고, 만지는 자마다 고침을 받았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자에게는 예외 없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예수님의 능력은 공간과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능력에 닿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조은희 권사님은 오랫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신 통증으로 고통받았다. 병원에서는 자율신경계 이상이나 섬유근육통 같은 여러 진단을 내렸지만, 어떤 치료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 중에 한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

그녀는 그 말씀을 단지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

화면을 향해 손을 뻗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했다.

“예수님, 저는 만지고 싶습니다. 저를 만져주세요.”

그날 밤부터 그녀의 몸에 변화가 나타났다.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조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한다.

“예수님의 능력은 단지 과거에 머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믿음의 손길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능력을 흘려보내시는 분이시다.

당신이 믿음으로 손을 내민다면,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만져 주실 것이다.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으라.
그 손길에 능력이 있다.
믿음으로 만지는 자는, 지금도 고침을 받는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눌린
자들도 고치셨고,
모든 병든 자에게 능력을 흘려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지금도 살아 있고,
그 은혜는 오늘도 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분을 만지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손을 들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

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흘러가게 하소서.

질병은 떠나가고,

고통은 멈추며,

내 영혼 깊은 곳의 억눌림도 풀어지게 하소서.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낳게 하신” 그 능력이

오늘 저에게도 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통증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억눌린 영은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마음의 어둠은 밝은 빛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만졌고,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6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치유의 주님



“[눅 7:12]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눅 7:13]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눅 7:14]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눅 7:15]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너무도 무력합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던 이도, 아무리 의연한

척하던 이도, 사랑하는 이를 잃는 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위로나 능력도, 그 깊은 상실의 슬픔을 완전히 덮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조차 이기시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나인 성의 과부는 이미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마저 죽어 관에 실려 나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앞날이 보이지 않고, 삶의 의미조차 잃은 절망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셨습니다. 성경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 우러난 공감과 사랑, 마음의 떨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에게 다가가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나 형식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는 곧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기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십니다.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죽은 자를 만지는 일은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죽음에 오히려 생명을 덧입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순간,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눈을 뜨고,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으며, 예수님은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생명이 다시 품에 안긴 것입니다.

수원에 사는 김석훈 집사님의 아들도 절망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자살 시도 후 긴급 수술로 가까스로 생명은 붙잡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조차 회복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김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병실에서 아들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붙

들고 기도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기도한 지 21일째 되는 날, 아들은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아빠...”

그 한 마디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온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아들을 다시 안아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죽음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희망이 사라진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상실의 고통 앞에 있는 자에게는 마음을 읽으시며 위로하시고,

죽은 것 같은 관계나 소망 앞에 있는 자에

게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치유자
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한 마디면, 삶이 다시 일어납
니다.

그러므로 절망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
오.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이 다시 시작됩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청년이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삶에도 죽은 것 같은 영역이 있

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마음,

무너진 가정,

멈춰버린 건강,

단혀버린 미래 앞에

저는 과부처럼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
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울지 말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말씀을 저에게도 들려주소서.

“내 아들이, 내 딸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 그 말씀을 믿고 일어섭니다.

죽은 감정도 살아나게 하시고,

끝난 줄 알았던 삶의 여정에 새 길을 열어
주시고,

잃은 것들을 다시 품에 안게 하소서.

예수님의 손이 지금도 내 삶의 관에 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죽음의 권세는 물러가고

생명과 회복이 다시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7

질병과 고통, 귀신 들림까지도
고치시는 치유의 주님



“[눅 7:21]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단순한 몇 가지 치유 사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고통에 짓눌린 영혼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눈이 먼 이들까지 모두 고치시는 전능하신 치유자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많은 자들을 고치셨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손길이 임했고, 치유의 역사가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은 몸을 아프게 하지만, 단순한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지치게 하고, 소망을 빼앗아가며, 관계와 믿음까지 약하게 만듭니다. 고통은 내면을 무너뜨리며, 악귀에 눌린 삶은 영혼 깊숙이 어둠을 퍼뜨립니다. 또 눈이 멀어 세상을 보지 못하는 현실은 단지 육체의 문제를 넘어, 미래를 볼 수 없는 절망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이 모든 무너짐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상한 몸이 치유되고, 눌린 마음이 일어나며, 어두운 영혼에 빛이 스며듭니다.

한 시각장애인 형제, 이창수 집사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실명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눈의 시력마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는 점점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삶의 방향마저 잃게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한 그는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단 위로 올라가 울부짖듯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그 ‘많은’ 소경 중 하나가 되게 해 주세요.”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되었고, 며칠 뒤 병원 검진에서는 놀랍게도 망막 기능이 회복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시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단지, 그분 앞에 나아간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마침 그 시에’라는 말씀처럼, 바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마음이 고통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당신 곁에서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그 능력의 손이 당신에게도 닿을 수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도, 지금도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림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밝히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은 지치며,
영혼은 놀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앞길은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시에 고치셨다” 하신 주님,
지금 이 순간,
제게도 그 능력을 나타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그칠지어다!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
어다!
눈먼 눈은 밝아지고,
막힌 마음도 열릴지어다!

주님,
저도 그 ‘많은 자’ 중 하나가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자리,
이 기도의 순간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소서.

회복의 예수님,
이제는 제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보게 하

소서.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8

18년의 고통도 풀어주시는
치유의 예수님



“[눅 13:11] 십팔 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
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눅 13:12] 예수께서 보시고 불
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
에서 놓였다 하시고
[눅 13:13]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은 짧지 않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닌, 열여덟 해 동안 한 여인은 허
리가 꼬부라진 채 살아야 했습니다. 단순
히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조차 할 수 없었고,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는 일마저 힘겨웠습
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눌린 삶, 사회로

부터도, 희망으로부터도 멀어진 채 살아가
던 그녀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
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
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중, 그녀를
보셨습니다. ‘우연히’가 아니었습니다. 무
리 속에서 외면당하던 그녀를 예수님은 ‘보
셨고’, ‘부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 말은 단순한 위
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가 담긴 선언이자, 영혼을 해방시키는 명
령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
다. 기도한 흔적도, 간절히 주님께 매달린
장면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다가오셨고, 그녀의 병을 꿰
뚫어보셨으며, 손을 얹어 안수하셨습니다.
그 순간, 18년의 눌림은 풀어졌고, 그녀는
몸을 곧게 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

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 회당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성미 자매는 만성 섬유근육통으로 인해 수년간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병원을 전전했고,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마침내는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할 병”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일, 누운 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녀는 누군가의 간증이 아닌, 성경 본문 속 말씀 자체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하신 말씀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

용히 자신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몸에서 갑작스런 열기가 올라오며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한 마디면, 18년도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길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래된 질병도, 깊은 눌림도, 오랜 고통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병에서 놓였다.”

지금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의 손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18년 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눈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봅니다.
고통의 시간만큼이나 무너진 희망,
매일 반복된 절망의 날들 속에
저 역시 허리가 아닌 마음이, 영혼이 꺾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 말씀을 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랜 눌림은 풀어질지어대!

내 몸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억눌림도 자유할지어다!

주님, 제게 손을 얹어 주소서.
당신의 손이 제 허리에, 제 심장에, 제 영혼
에 닿게 하소서.
말씀하시고, 안수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늘 이 순간, 저는 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회복의 사
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9

감사로 나아올 때 치유가
구원으로 완성된다



"[눅 17:12]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눅 17:13]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어 나를 긍휼히 여
기소서 하거늘

[눅 17:14] 보시고 가라사대 가
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
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
함을 받은지라

[눅 17:15]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눅 17:16] 예수의 발 아래 엎드
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
이라

[눅 17: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
디 있느냐

[눅 17: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가 없느냐 하시고
[눅 17:19] 그에게 이르시되 일
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실 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열 명의 나병환자가 그분을 향해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침 속에는 간절함, 절망,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병은 육체의 병일 뿐 아니라, 공동체로부터의 단절, 가족과의 이별, 종교적 배제까지 불러오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사

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가까이 갈 수도, 손을 뻗을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조차 그들의 믿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라도 주님께 소리쳤고, 예수님은 그 외침을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의 명령은 아직 아무 변화가 없던 그 시점에 주어졌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눈에 띄는 치유의 징조도 없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의 걸음 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열 명 중 단 한 명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나음을 입었음을 깨닫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열 명 모두 병은 고침받았지만, 감사함으로 돌아온 한 사람만이 ‘구원’이라는 더 깊은 은혜에 이르렀습니다. 치유는 몸의 회복이지만, 감사는 영혼의 회복을 부르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치유가 시작이라면, 감사는 완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이소영 집사는 유방암 4기 진단을 받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날을 눈물로 지새웠고, 가족들과 함께 매일 기도하며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회복이 찾아왔고, 검사 결과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병이 나았다”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간직한

채 멈추지 않고, 간증집회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한 사람, 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고, 그녀의 고백은 누군가의 믿음이 되고, 누군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단지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 주님께 돌아가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병이 나은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이라는 더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당신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의 감사가 당신의 삶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외침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
니다.

저도 오늘 그 열 명 중 한 사람처럼
멀리서 주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제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아도,
먼저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걷는 그 길에서
저도 깨끗함을 입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제가 잊지 않게 하소서.
치유받고 돌아서지 않게 하소서.
그저 고침만 받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주님께 달려와
감사하며 앞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제게도 말씀하소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를 넘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0

삼십팔 년의 기다림도
단번에 끝내시는 주님의 명령



”[요 5:5] 거기 삼십팔 년 된 병자가 있더라

[요 5: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요 5: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요 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요 5: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삼십팔 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길다 말하기엔 너무나도 무거운 세월입니다. 요한 복음 5장에 나오는 병든 한 사람은 그 오랜 시간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보냈습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몰라 늘 누워 기다리는 삶, 그리고 물이 움직이는 순간마다 자신보다 빠른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 치유 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은 또다시 뒤로 밀려나는 현실. 그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마음을 울립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에는 단순한 병의 고통이 아니라, 철저한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 누구 하나 손 잡아 주지 않는 인생에 대한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물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기를, 아무도 자신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이 그를 바라보신 예수
님은 그가 얼마나 오래 병들어 있었는지
아셨고, 그의 누운 자리를 아셨으며, 그의
가슴에 남겨진 절망의 무게도 다 아셨습니
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
던 갈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불씨가 되
었습니다. 병이 너무 오래되어 오히려 익
숙해진 그에게, 다시 믿고 다시 기대하라
고 말씀하시는 듯한 그 물음은 단순한 대
화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은 연못이 출렁이지 않아도, 누군
가 밀어 넣지 않아도, 단번에 회복을 일으
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삼십팔 년 동안 눌

려 있었던 병자의 삶이, 그 한 마디의 말씀에 의해 변화된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김재환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다리를 절었고, 성인이 된 후에는 거의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치료와 수술에도 불구하고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그는 점점 삶의 의지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은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고, 그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예, 주님. 저는 낫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신유 집회에서 기도받는 가운데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보니, 믿기지 않게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고,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삼십팔 년의 눌림도, 절망도, 외로움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치유는 지금도 우리 삶 한복판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십팔 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저도 지금 이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몸은 병들고, 마음은 지쳤고,
오랜 기다림에 희망조차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질문이
제 가슴을 뚫고 들어옵니다.

예, 주님.
저는 낫고 싶습니다.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 눌림의 자리를 떠나
걸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고,
심령은 일어나며,
절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다시 시작될지어다!

주님, 이제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믿음으로 자리를 들고,
다시는 눕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저를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1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회복시키시는 세상의 빛 예수님



“[요 9:1]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을 보신
지라

[요 9:2]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었나이까 자
기오나이까 그 부모오나이까

[요 9: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
니라

[요 9: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
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 9: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 9: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
에 바르시고

[요 9: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너무 오래되면, 그것은
어느덧 그의 정체성처럼 여겨집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한 사람도 그러했
습니다. 그는 단 한번도 세상의 빛을 본 적
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조용
히 속삭이듯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 본인의
죄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일까?” 그에게 내
린 병을 죄의 결과로 단정지으며, 그의 인
생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선에 단호히 반응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의 질병을 정죄의 결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무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단지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서 얼굴을 씻은 후, 그는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둠뿐이던 삶 속에 갑작스럽게 빛이 밀려들어왔고, 그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박정우 형제 역시 시각장애 1급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손끝과 귀로만 배워야 했고,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같은 질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태어난 건가요?”

그 질문은 오랜 세월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말씀은 마치 가슴속 깊은 곳을 찌르는 빛처럼 다가왔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위로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작은 간증 영상들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중 희미하게 빛이 느껴졌고, 이후 몇 달 동안 시력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망막의 기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약시 상태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정죄의 결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손을 대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리가 됩니다.

빛을 잃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묻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대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너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그 장면을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병을 죄로 판단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기회로 보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어둠 속에 있었고,
세상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 눈에 진흙을 바르시는 것 같은
이해되지 않는 과정을 겪는다 해도

기꺼이 실로암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씻으라 하셨기에,

가서 씻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대로

저도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물러가고,

시력은 회복되며,

영혼의 눈도 열릴지어다!

주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치유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빛을 품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2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요 9:31]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의 빛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는, 단순히 육체의 시력을 되찾은 것에 그치지 않고, 놀라운 영적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의 삶에 일어난 변화는 단순한 치유의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뜬 이 사람은, 자신을 향해 비난을 쏟아붓는 바리새인들 앞에

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다.” 이 고백은 단지 들은 교리를 되풀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치신 것은 단지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기도나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머물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

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들려집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유재훈 집사님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오랫동안 음란 중독에 빠져 있었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말씀을 접한 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회개했는가?”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후회가 아닌, 삶을 바꾸기 위한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자신을 다스렸고, 새벽마다 경건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던 어느 날, 오랫동안 괴롭혀오던 허리디스크 통증이 사라졌고, 그의 삶 전반에 걸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는 회개의 바탕 위에 쌓일 때 비

로소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응답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너의 마음과 삶을 내게 돌이켜라. 경건함,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기적의 열쇠이며, 응답의 문을 여는 비밀입니다.

만약 당신의 기도가 지금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회개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아무 기도나 듣지 않으시는 분이심

을 고백합니다.

죄에 머무는 자의 기도는

당신의 얼굴 앞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은 기도하지만,

삶으로는 죄 가운데 머물렀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숨겨진 죄는 떠나갈지어다!

회개의 영이 내 안에 임할지어다!

경건의 삶이 시작될지어다!

주님,

이제 제 기도를 들으소서.

회개한 마음을 열어보이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제 삶으로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3

생명을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요 10: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존재의 연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단지 숨만 붙어 있는 상태를 넘어서, 진정한 의미와 기쁨, 치유와 회복, 평안과 능력이 가득한 삶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영혼을 죽이며,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자가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는 도둑이며, 사탄이며, 철저히 파괴와 절망을 목적으로 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사는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은 단지 수명이나 건강에 관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되고 치유되는 삶,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어떤 치료나 철학도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 회복을 포함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유라 자매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약물에 의존해야만 겨우 버텨낼 수

있었고, 삶에 대한 소망은 이미 오래전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기도 모임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생명은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넘쳐흐르는 생명이다.”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그날 밤, 유라 자매는 예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싶어요.” 그 이후, 그녀의 삶에는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지금은 활기찬 모습으로 간증하며,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완전히 바꿔 주셨어요. 저는 이제 단지 사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 그리고 그
생명은 넘치도록 줄 것이다.” 병든 몸, 지친
마음, 꺾인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 나오십
시오. 진짜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며,
그분은 당신을 회복시키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실 분입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도적이 제 삶에 들어와
기쁨을 빼앗고,
평안을 도둑질하며,
소망을 죽이고,
마음을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

이요,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
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그저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슬픔은 변하여 찬송이 되고,
상처는 회복이 되며,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지어다!

주님,
저는 도적의 속삭임이 아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로
다른 이들에게도 그 생명을 나누며 살겠습
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4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치유의 기적



"[행 3:3]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행 3:4]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 붙어 주목하여 가로되 나를 보라 하니

[행 3:5]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행 3:6]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행 3:7]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행 3:8]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행 3:9]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밋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행 3:10]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
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던 한 사람의 일상
은 오직 구걸뿐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
고,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감당해
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생계를
이어갔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희망보다는 체념이, 기대보다는 포
기가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

게 습관처럼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던 순간에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는 단지 몇 푼의 동전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날로 정해두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권세와 생명이 선언된 순간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눌러 있던 삶 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켰을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 예배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임종태 형제의 이야기도 이 성경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7년 동안 휠체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진 채, 신앙 생활조차 이어가기 힘들 만큼 마음과 몸이 지쳐 있던 어느 날, 그는 온라인 예배 중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은 그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고,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다리에 미세한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고, 이후 몇 달에 걸쳐 재활치료와 함께 기도하며 보조기를 착용한 채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 기적을 간증하며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늘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도 살아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무너진 삶을 다시 건게 하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권세가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며,
그 이름에는 모든 억눌림을 풀어내는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도 오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처럼

삶에 눌러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기대보다는 포기과 체념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저를 부릅니다.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내 몸은 회복될지어대!
움직이지 못하던 마음은 살아날지어대!
무너진 믿음은 다시 일어설지어대!

주님, 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소서.
그리고 저도 이제 걷게 하소서.
걷는 것만이 아니라,
뛰며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 되게
하소서.
찬양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5

그림자만으로도 역사하신 주의 능력



“[행 5:14]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행 5:15]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

[행 5:16]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은 단순히 설교나 가르침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흥은 실제적인 치유와 기적의 역사로 이

어졌고, 성령의 능력이 공동체 전체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었고, 그 결과는 눈에 보이는 생명의 역사로 드러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은 병든 자들을 메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신들에게 닿기를 바랐습니다. 사실 그림자는 물리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베드로의 그림자마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는 베드로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삶과 존재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주변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즉 가장 약하고 가벼운 것조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은 단지 그 시대의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박은실 권사님의 간증은 이 진리를 오늘날에도 그대로 증언해 줍니다. 그녀는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던 중, 극심한 고통으로 몸조차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조차 현장에 갈 수 없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설교 중에 ‘베드로의 그림자’에 대한 말씀이 전해졌고, 그녀의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박 권사님은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람의 손길도 닿을 수 없지만, 그림자도 역사하셨다면, 이 온라인 영상의 그림자라도 저를 덮게 하소서.” 믿음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며칠 뒤부터 통증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정밀 검사에서는 암세포가 현저히 줄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서든 역사합니다. 심지어 그림자 속에도 능력이 흘러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러진 평범한 존재, 믿음으로 내밀어진 손, 기도로 채워진 공간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조차도 치유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당신의 손과 음성, 그 믿음의 고백 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어떤 공간이든 채울 수 있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임재를

갈망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림자도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당신의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병든 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에 닿기만을
바라며
침상 위에 누워 기다렸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은 절박했고,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모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하신 주님,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도 지금 나아갑니다.
몸은 지쳐 있고, 마음은 놀려 있지만
주님의 임재 앞에 서면 그림자만으로도 능
력이 흐른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의 억압은 사라질지어다!
생명과 평안이 내 육신과 영혼을 가득 채
울지어다!

주님,
오늘도 저를 덮는 주님의 은혜의 그림자가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저를 감싸는 모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저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6

팔 년 된 중풍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행 9:32] 때에 베드로가 사방
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행 9:33]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지 팔 년이라
[행 9:34]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
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
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
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행 9:35]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
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
아가니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팔 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특히
그 세월을 침상에 누워 보내야 했다면, 그
것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한 인간의 삶 전

체가 멈춰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애니아라는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중풍으로 인해 팔 년 동안 움직일 수 없었고, 침상은 그의 일상이자 감옥이었습니다. 걸었던 기억은 과거의 일이 되었고, 일어나는 것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으며, '회복'이라는 단어는 그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에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자 복음의 사도인 베드로가 애니아가 누워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그를 향해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 짧은 한 마디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닌 치유의 능력이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베드로가 자신의 이

름이나 능력으로 고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는 치유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역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애니아는 곧 일어났고, 그동안 눌러 있던 자리를 스스로 정돈하며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병이 나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니아의 회복은 룻다와 사론 지방 전체에 복음의 소문이 퍼지는 계기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부흥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치유가 한 도시의 구원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은혜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장기호 장로는 뇌졸중으로 반신이 마비되어 7년 동

안 휠체어에 의존해 살아야 했습니다. 외출조차 힘든 그는 예배조차 온라인으로 드리며, 고독과 절망 속에서 오직 말씀에 의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후 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물리치료와 믿음의 기도를 이어가던 그는 3개월 만에 보조 없이 스스로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지역 복지센터에서 노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 이름 앞에 시간의 길이나 병의 깊이는 아

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팔 년 된 중풍도, 수십 년 된 눌림도 그분의 한 마디 말씀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당신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팔 년 된 중풍을 고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있고,
제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오늘 애니아처럼
움직이지 못한 채 오래도록 눌러 있었습니
다.

몸이 아프고,
마음은 절망에 눌렸고,
영혼은 신음하며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고 선
포하셨으니,
이제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중풍과 같은 모든 마비는 풀어질지어대!
움직이지 않던 관절은 움직일지어대!
눌린 마음과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대!

주님,
제 삶이 다시 움직이게 하소서.
제 간증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7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기름부음의 주님



“[행 10: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단순히 교훈을 전하고 도덕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나타내는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

께 하셨음이라.”

‘기름부음’이라는 말은 단지 종교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실제적인 권세의 부여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며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름부음을 받으신 이후, 단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고, 병든 자, 눌린 자, 버림받은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자마다 삶이 변했습니다.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정신적 억압, 영적 사슬까지 끊어내시는 전인적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병’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는 곧, 질병과 고통의 이면에 자리한 어둠의 세력까지 꿰뚫고 대적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며, 그 기름부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흘러옵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장은주 집사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불안과 환청에 시달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놀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약도 그녀를 온전히 자유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 그녀는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놀린 자입니다. 저를 고쳐 주세요.”

그녀는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름부음 받으신 분이라면, 그 능력이 지금도 살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의 반복된 선포와 믿음의 싸

움 속에서, 조금씩 불안은 잦아들었고, 환청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어, 많은 여성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회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기름부음은 지금도 마귀의 놀림을 꺾고, 나 같은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에는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름부음은 지금도 믿는 자 위에 머물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자유를 주며,

마귀의 놀림을 끊고, 질병을 떠나가게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떤 부분이 억눌려 있습니까?

불안, 우울, 두려움, 중독, 반복되는 좌절...

그 모든 눌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단지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 위에 그 기름 부음은 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름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부어주셨고,
그로 인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이
치유되고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어둠의 놀림과 묶임 속에 있던 자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슬픔과 분노,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눌렸던 시간들 속에
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
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부음을 믿는
다!
그분은 지금도 나를 고치신다!”

성령님,
지금 저에게 임하여 주소서.
모든 마귀의 억압은 떠나가고,
속박은 끊어지며,
영혼의 어두움은 밝은 빛으로 대체될지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회복과 새 삶을 선포합니다.

주님,
당신이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놀리지 않고,
이제는 묶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8

구원 받을 믿음이
치유의 기적을 여는 열쇠



“[행 14:8]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행 14:9]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행 14:10]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발로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바닥에 머무는 삶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며 생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집중해서 들었고, 바울은 그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빛처럼, 바울은 그 믿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명령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담긴 선포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곧바로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걷는 것을 넘어 뛰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평생 걷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근육 훈련을 한 적도 없었지만, 믿음과 말씀의 능력이 결합되었을 때,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그의 삶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동래에 사는 김주한 형제의 이야기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지마비로 휠체어에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신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부흥회에 참석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는 “저도 가능할까요?”라는 의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병자에게서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면, 그분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을까?”

그 믿음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고, 예배 중 “일어서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에서 조심스레 일어나 몇 걸음을 떼는 기적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조기구 없이도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찬양사역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내게도 걷는 삶을 주셨습니다. 믿음 하나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해 역사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오늘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뛰어 걷는 삶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도 나면서부터 주저앉아 있던 자처럼
영적인 자리, 육적인 질병, 심리적인 눌림
가운데
걸어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섭니다.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제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주소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씀을 저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은 일어날지어다!
내 병든 육신은 치유될지어다!
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지어다!
나는 일어날 것이며,
나는 걸을 것이며,
나는 땀 것이며,
나는 찬양할 것이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삶을 시작하게 하소서.

이제는 걷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자로 살아가게 하
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9

기도와 안수를 통해
연쇄적으로 치유를 일으키신 하나님



“[행 28:8]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
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
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
수하여 낮게 하매

[행 28:9]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
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던 중 풍랑을 만나 멜
리데 섬에 도착한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
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또 하나의 치유와 복음의
기회였습니다. 그 섬에서의 체류는 단지
피난이나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
나님께서는 그곳에 미리 준비된 사역의 문
을 열어 두셨습니다.

멜리데 섬의 지도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의 집에 들어가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위가 자연스럽고 일상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손을 얹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를 통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한 사람의 치유를 목격한 섬 주민들이 속속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고, 성경은 “다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단 한 번의 기도, 한 사람의 회복이 전체 공동체에 치유의 불을 지핀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단순한 개인의 위로를 넘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정수진 자매도 비슷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해 세균성 장염과 고열로 시달리며 스스로 기도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접하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손을 배 위에 얹고 조용히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저를 만지신다고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단순한 행위 이상의 믿음과 의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열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며칠 후 기적처럼 몸이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정수진 자매는 말합니다. “안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해질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 손끝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고백은, 치유의 본질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의 치유를 시작점으로 삼아 또 다른 치유의 문을 여십니다. 기도는 여전히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손이든, 병상에 누운 평신도의 손이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손끝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고, 멜리데 섬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치유의 섬으로 바뀌게 됩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치셨고,
그로 인해 온 섬의 병자들이 고침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 기도의 능력과 안수의 통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손은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되고,
안수할 때 주님의 능력이 흐르기를 원합니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이질과 고통은 멈출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
을지어다!

주님,

제게 먼저 회복을 주시고
그 회복을 통해 내 가정, 교회, 이웃이
함께 치유되게 하소서.

한 사람의 회복이

온 섬의 치유로 이어졌듯,
저의 삶을 통해 연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0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



“[롬 8: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신학적 개념이나 미래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바울이 전한 이 진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의 죽어 가는 몸, 지쳐가는 마음, 절망 가운데 있는 삶에 지금도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의 실체임을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모든 희망은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신 그 부활의 기적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살아 있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입니다. 성령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 안에 실제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동일한 권능으로, 지금도 병든 몸, 지친 영혼, 주저앉은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김도현 장로의 이야기

는 그 증거와도 같습니다. 그는 암 수술 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삶의 의욕조차 잃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던 중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다면, 이 죽을 몸도 살리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단지 회복을 구하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말씀을 소리 내어 선포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님, 이 죽은 것 같은 몸을 다시 살려 주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몇 달 뒤부터 그의 기력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새벽예배에서 대표기도를 맡아 감사를 드리는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제 몸을 살리신 분은 병원이 아니라, 제 안

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숨 쉬고 계신다면, 내 삶에 포기할 병은 없습니다. 치유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성령은 죽음을 이기신 영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곧 회복이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죽은 몸도 살리시는 그 영이, 지금 나를 살리고 계십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

의 능력을

제 안에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 몸은 연약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영은

죽은 몸도 살리시는 능력의 성령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죽은 것 같은 내 세포와 기관은 다시 살아
날지어다!

기력이 회복될지어다!

심령이 깨어날지어다!

육체도 다시 움직일지어다!

주님,

제가 의지할 것은 약도, 기계도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지금 제 몸을 감싸고,

제 뼈를 회복시키시며,

내 호흡과 세포 안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죽음의 기운이 떠나가고,
생명의 권세가 제 몸 안에 일어날 줄 믿습
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거하셔서
저를 일으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1

성령께서 주시는 병 고치는 은사



“[고전 12:9]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과 필요
에 따라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 은사는 결코 인간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며, 그 목적은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기 위
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특별
히 주목하고자 하는 은사는 바로 “병 고치
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신비한 기술이나 특별
한 사람만이 소유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는 성령께서 뜻하시는 사람에게, 사랑과
공훈의 마음으로 주시는 도구이며, 하나님

의 자비와 회복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채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말썽을, 또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철저히 주권적이면서도 동시에 인격적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 치유가 일어날 때,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회복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사를 통해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윤세라 전도사의 이야기는 이 은사가 어떻게 실제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한 집회에서 한 자매의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던 중, 윤 전도사는 자신의 손바닥을 통해 뜨거운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자매는 통증이 즉시 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처음 주어진 병 고치는 은사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밤마다 성령님께 기도하며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나요?” 그녀는 그 은사를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흘려보내는 생명의 물줄기”라고 고백하며, 자신은 다만 그 물줄기를 따라가는 통로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 은사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만 있었던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 병 고치는 은사를 부으시고, 그를 통해 아픈 자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고, 마음을 열

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저를 통해
당신의 긍휼을 흘려보내 주세요”라고 기도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꺼
이 당신을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
다.

병 고치는 은사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
은 사랑의 사역이며, 치유의 통로이며, 성
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그 은사를 통해
누군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님은 그 은사를, 당신에게도 주시길 원하
실 수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상한 육체와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그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손은 작고 부족하지만

당신의 성령이 임하신다면,

그 손끝에서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지금도 존재한다!

성령님은 나에게도 주실 수 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사모한다!

나는 순종하겠다!

주님,
이 은사를 내게 허락하셔서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은사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2

교회 안에 세우신 병 고치는 은사와
치유의 사명



“[고전 12:28] 하나님이 교회 중
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
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단지 건
물이나 조직의 형태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
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셨
고, 그 몸이 살아 움직이고 건강하게 기능
하도록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병 고치는 은사는 단순한 치유의 사건을
넘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드
러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선지자, 교사와 같은 말씀 중심의 직분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에 따라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며 성장해 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바로 그러한 은사 중 하나로,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영혼의 회복까지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이 은사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필요에 따라, 누구를 통해서든 나타내시기를 원하실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언제나 공동체를 향해, 곁에 있는 아픈 이들을 향해 흘러갑니다. 병든 자 한 사람을 위해 흘러간 기도와 손길은 공동체 전체를 소생시키고, 교회가 '살아 있는 생명의 공동체'임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대구 동구에 사는 이현숙 권사님의 이야기는 이 은사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조용한 순종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기도 중 성령께서 “너는 치유하는 손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까지 그녀에게 특별한 은사나 경험은 없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손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손길을 통해 통증이 사라지고, 수면장애를 겪던 이들이 평안한 잠을 자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강단만이 아닙니다. 아픈 자 곁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엎드리는 자리에도, 주님의 능력은 흘러갑니다.”

이처럼 병 고치는 은사는 회복되어야 할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지친 자가 다시 살아나는 곳이어야 하며, 그 중심에 치유의 은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도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단지 기적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아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손이 되어 보십시오.
당신을 통해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은사들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부으시는 은혜의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에도 이 은사를 사모하는 갈
망을 부어주소서.
저를 통해 아픈 자가 회복되고,
지친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선포되기를 원합니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오늘도 교회에 살아 있
다!
나는 그 은사를 사모하며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치유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

주님,

치유의 자리에 제 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자 곁에 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치유의 공동체로 세
워지게 하소서.

병든 자가 다시 일어나고,
절망하던 자가 다시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
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3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 3:13]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고 심각한 질병은 육신의 병보다 더 근본적인, 바로 죄와 저주로 인해 병든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 병은 어떤 약이나 수술로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마음속 깊은 절망, 죄책감, 반복되는 불행과 저주의 고리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태를 치유하시기 위해 하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정죄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완전한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와 저주, 우리 가문과 인생을 짓누르던 어두운 굴레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저주의 자리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과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영혼과 삶 전체를 치유하는 능력의 중심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김선아 집사의 이야기는 이 복음의 진리를 실제로 보여줍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 안에 만연했던 우울증, 조울증, 반복되는 사고와 실패의

그림자를 보며, “우리 집은 저주받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똑같은 문제들이 세대를 넘어 반복되었고,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복음 집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그녀는, 처음으로 이 문제가 ‘영적인 저주’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고, 며칠 후에는 가족 전체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가정의 저주를 끊는 능력이었습니다. 정죄가 끝나고, 자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 있는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할 뿐 아니라, 가문과 인생에 드리운 저주의 그림자를 끊어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도 이 십자가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곳에 당신을 위한 속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속량받은 자요,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저주의 자리에 서셨고,

율법의 정죄를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한때 저주의 굴레 아래 살았습니다.
반복되는 실패, 고통, 병, 정죄감에 눌려
삶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이 말
씀을 붙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가계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대!
반복된 실패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대!
무기력과 정죄는 떠나갈지어대!
나는 자유하대!
나는 속량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대!

주님,

이제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 살게 하소서.
속량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저도 이 치유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4

기름 부음과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약 5: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질병 앞에 놓인 인생들에게 단지 인간적인 위로가 아닌, 실제적인 회복의 길을 제시하셨다. 야고보서 5장 14절은 병든 자가 있을 때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치유의 질서다.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며, 주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한다. 즉,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픈 자를 맡긴다는 뜻이다. 이 모든 과정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단순한 육체의 치유를 넘어 영혼의 회복까지 기대하는 전인적인 기도 행위가 된다.

충북 청주에 사는 이준희 집사는 간암 판정을 받고 삶의 끝자락에 서 있었다.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 앞에 절망하던 그는, 교회 장로들의 권유로 예배 후 기름 부음을 받기로 결정했다. 병상에 누운 채, 장로들이 그의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던 그 순간, 그는 마치 뜨거운 생명의 기운이 몸을 타고 흐르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몇 주 후, 병원 검진 결과 암 수치가 눈에 띄게 줄

어둠과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그 기름도, 그 기도도 중요했지만, 진짜 능력은 주의 이름 위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에 순종했을 때, 회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병든 자가 있다면 혼자 견디기보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은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며,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 반드시 치유의 손길이 따라온다. 성령은 지금도 기름 부음과 기도를 통해 아픈 자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신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병든 자에게 치유의 방법을 허락하
셨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게 하
심으로
공동체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셨습니
다.

하나님, 저도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 몸에 아픔이 있고,
제 마음에 눌림이 있으며,
제 삶에 무너짐이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기도받을 때 회복될 줄 믿
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지어대!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흘러

갈지어다!

공동체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지어다!

나는 회복될지어다!

나는 일어날지어다!

나는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이름 안에 있는 치유의 권세가

내 삶 가운데 실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살리고
죄까지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약 5: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단지 육체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고, 영혼의 깊은 부분까지 다루시는 전인적 회복임을 보여준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분명히 말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병의 호전이나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몸과 마음, 죄와 의, 고통과 자유까지 아우르는 하나님의 완전한 개입을 뜻한다.

기도는 인간이 드리지만,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병든 자를 직접 일으키시며, 혹시 병의 근저에 죄가 있었다면 그 죄까지도 사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의 치유는 표면적인 증상에 국한되지 않고, 죄로부터의 자유와 회복까지 이르게 하신다.

경기 화성에 사는 김상철 집사의 이야기는 이 말씀의 살아 있는 증거다. 그는 심장질환과 만성피로로 오랫동안 고통받았고, 일상조차 버겁게 살아가야 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무릎 꿇어 회개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병 낫기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눈물로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 중 그의 심장이 힘차게 뛰기 시작했고,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 후 병원에서의 검진 결과도 점차 나아졌고, 그는 더 이상 약물에 의존하지 않아

도 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는 간증한다.
“그 기도는 제 몸만 살린 게 아니라, 제 마음도 살렸습니다. 주님은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일으키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단지 치유를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휼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다. 병든 자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닿을 것이며, 주님은 그 기도 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육체적으로도, 영혼적으로도 온전히 일으키실 것이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 마음과 몸을 내려놓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
리라.”

하나님, 저는 병들었습니다.
육체도 지쳤고,
마음도 무너졌으며,
숨겨진 죄로 인해 눌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를 고쳐주소서.
저를 일으켜주소서.
저의 죄도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몸은 회복될지어대!
나의 마음은 자유할지어대!
나의 죄는 용서받았을지어대!
나는 다시 일어날지어대!
나는 구원을 받을지어대!

주님,
당신의 능력이 이 믿음의 기도 위에 임하
게 하시고
저를 다시 온전케 하소서.
이 기도가 내 삶의 치유의 시발점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6

병 낫기를 위한 서로의 기도와
의인의 강력한 간구



“[약 5:16]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방식 중 하나는 바로 공동체 안에서 드러지는 서로의 기도입니다. 이는 치유가 단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중보, 그리고 진실한 나눔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치유는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

이 많으니라.”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강조되는 것은 “서로 죄를 고하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히 입술로 잘못을 말하는 것 이상의 용기와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공동체 안에 솔직히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바로 그 정직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 그저 혼자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자매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단지 위로의 말이나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 진리를 삶으로 체험한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박용기 장로는 오랫동안 고혈압과 불면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그 증상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기도모임에서 위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내면의 죄와 두려움을 형제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공동체는 함께 울며 회개했고,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장로님은 그 순간 마음속 깊은 평안을 경험했고, 이후로 혈압이 안정되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의 치유는 죄를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니다. 정직한 고백과 중보는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서로의 고백과 중보를 통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치유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아픔을 숨기지 말고, 믿음의 형제자매와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갑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
제가 그동안 숨기고 감추었던 죄를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나눔과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병들었을 때
형제자매들의 기도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저도 그들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응답될지어다!
회개의 고백은 치유의 문을 열지어다!
중보의 기도는 병을 고칠지어다!

하나님,
오늘 제 입술의 고백과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제 삶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7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벧전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
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
음을 얻었나니”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죄를 용서
하시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
과 상처를 고치기 위한 치유의 대속이었습
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몸으로 나무에 달
리시고, 나 대신 저주받은 자의 자리에 서
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채찍을 맞으심
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나음
은 육체의 회복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 영
혼의 눌림까지도 포함하는 온전한 치유입
니다. 예수님의 채찍은 단지 고통이 아니

라, 내 삶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대전 유성에 사는 박은하 자매는 오랜 편
두통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지만, 이 말씀
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채찍에 맞
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매일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마음의 평
안이 찾아왔고, 어느 날부터 깊은 잠을 자
며 완전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상처
가, 제 상처를 덮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음을
주는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
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
에 달리시고 그 몸으로 제 죄를 담당하셨
음을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서 저
주의 자리에 오르셨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의 모든 죄와 질병을
짚어지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크신 은
혜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병든 영역, 육체의 연약함, 반복되는 통증,
지친 마음, 눌린 영혼을 이제 주님 앞에 올
려드립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
수님이 당하신 채찍은 저를 위한 것이었
고, 그분의 상처는 제 치유를 위한 대가였
으며, 그분의 피흘림은 저의 구원을 이루
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병
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

량된 자로서,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음을 입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 제 몸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며, 놀림을 끊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장기와 세포, 혈관과 신경, 뼈와 근육, 정신과 감정, 영혼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죽음의 기운은 끊어질지어다. 나를 묶고 있던 질병의 굴레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나는 나음을 입었노라, 나는 고침을 받았노라, 나는 회복되었노라, 나는 다시 살아났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며,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

는 예수님의 채찍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
고, 내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
니다. 주님, 저의 육체와 심령에 완전한 회
복을 이루어 주시고, 저의 삶을 통하여 하
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
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88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



”[요일 5:14]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
심이라 [요일 5:15] 우리가 무엇
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 니다>

기도는 단지 하늘을 향한 막연한 외침이나
자기 확신을 위한 독백이 아닙니다. 성경
이 말하는 기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 드
리는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간구이며, 하나
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 사도는 [요일 5:14]에서 이렇게 말합
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
이라.” 여기서 ‘구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이테오>는 ‘간절하고 확신에 찬 청원’을 뜻하며, ‘들으신다’는 <아쿠오>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마음에 담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내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며, 이는 감정이나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더 놀라운 선언은 이어지는 [요일 5:15]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얻는다’는 헬라어 <에코>는 ‘소유하다, 가지다’라는 현재적 실재를 나타내며, ‘얻은 줄을 안다’는 표현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내 것이 되었음을 선언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

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합니다. 믿음은 결과가 보이기 전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현재의 현실로 끌어오는 능력입니다.

경기 이천에 사는 이지현 자매는 오랜 시간 면역질환으로 고통을 겪으며 수년간 치료를 받아왔지만 큰 차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요한일서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영적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생명이고 회복이라면, 나는 이미 들으심을 입은 자이며, 응답은 시작되었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은 이미 주께서 들으셨고, 저는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 몸의 증상은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고백의 입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를 드리던 중, 한 달이 채 지나기 전 몸의 피로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검진 결

과 회복의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뒤에 믿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치유의 역사는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기도했다면, 이제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일은 완료형으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그 확신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며, 그 믿음의 고백이 현실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신 말씀
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제 병과 고통을 아 니다.
저는 병든 몸을 고쳐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 안에 머무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구하고 기다리는 자리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이미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얻은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회복된 줄
믿습니다.”
제 몸의 통증이 아직 남아 있어도,
검진 결과가 그대로여도,
저는 말씀 위에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치유되었노라.

나는 회복되었노라.
나는 응답받았노라.”

하나님, 저의 고백이 현실이 되게 하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이 열리고
치유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오늘 제 삶에도 따르게 하시고,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증
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9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요삼 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에게 보낸 인사의 중심에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영혼만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땅에서의 삶도 잘되기를 원하시며, 또한 육신도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요한이 말한 “네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표현은 영적인 건강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내면이 하나님과 조화롭게 연결될 때, 삶의 나머지 부분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안정되며, 몸도 회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몸이 강건해지는 것은 단지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광주에 사는 정영순 권사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자녀 문제와 건강 문제로 인해 고통 속에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만 흐를 뿐 마음의 평안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고, 마음 깊은 곳에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먼저 영혼이 잘되어야 삶도 강건해질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그

는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무기력하던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던 삶에 평안이 찾아왔으며, 놀랍게도 몇 달 후에는 해결되지 않던 아들의 문제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혼이 먼저 살아나니 삶의 모든 영역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영혼과 삶, 둘 다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너의 건강도, 네 삶도 잘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도 영혼의 회복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일으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잘되기를 원합니
다.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머물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
서.

하나님,
저의 삶이 뒤엉켰고,
건강도 무너졌으며,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님, 제 영혼을 먼저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저를 살리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를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저의 몸도 만져 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가고,
고통은 멈추며,
세포는 살아나고,
신경과 장기와 뼈와 근육이
주님의 손길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영혼이 잘된 자에게 따르는 평안과 기쁨과
형통을
제 삶에 부어주시고,
이 치유의 은혜가
저를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하
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
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90

생명수의 강과 치유의 나뭇잎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



“[계 22:1]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밋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회복과 치유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심겨진 생명나무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완전

한 생명과 회복의 공급입니다.

이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즉, 생명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며,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셨습니다. ‘소성하다’는 말은 다시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방과 민족과 개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미래의 천상적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은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지금도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덮고 있다는 약속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박선우 집사님은 위암 3기로 항암 치료 중에도 계속 상태가 나빠지고 있던 중,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다 이

구절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생명수의 강이 제게도 흐르게 하소서. 저를 소성하게 하소서.” 그는 매일 기도 중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지금 내 속을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40일이 흐른 후, 통증이 사라졌고 검사 결과 암이 급격히 줄어들어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생명수는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내 영과 몸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바라봅니다.
그 강물은 맑고 투명하며, 제 영혼 깊은 곳까지 닿는 생명의 물줄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제 심령과 육체에 그
생명수가 흐르게 하소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강물이 저
의 모든 질병을 씻기게 하시고,
제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씻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
성케 하신다 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저에게도 그 잎사귀가 임하
게 하옵소서.

저의 병든 몸에, 저의 지친 정신에, 저의 무
너진 삶 위에

그 잎사귀가 덮이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지금 내 속에서 흐를지어
다.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나를 덮을지이다.
내 세포는 살아날지이다.
내 장기와 뼈와 신경은 회복될지이다.
나는 소성될지이다. 나는 살아날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제게 성취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치유하시
는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 앞에 무릎 꿇
고 간구하오니,
저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
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질병을 치유하는 선포문

초판발행 2025. 6. 1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 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종!
CHANCE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